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 여고생의  
성형 경험에 관한 연구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장 유 미






# 한국 여고생의 성형 경험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정진성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장유미

장유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위원장 배 은경   
위원 김소라   
위원 정진성 



## <국문 초록>

### 한국 여고생의 성형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장 유 미

본 연구는 한국 여고생들의 성형 경험을 통해 성형을 추동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시도다.

학교 교육, 부모와 또래 등 동료 집단으로부터 경유된 자기계발 담론, SNS 플랫폼 시대의 자기전시문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 내면화, 성형산업과 같이 여고생 성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수들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틀을 설정하고 그녀들이 성형을 의미화 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학교 제도적 영역을 통해 여고생들이 받는 몸과 신체 이미지에 대한 교육은 체육 교과와 생활지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 체육은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균형적 발달을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심신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 습관 실천을 통해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자아의식을 배양하여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과목의 목적을 두고는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올바른 신체 이미지 정립,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가치정향, 건전한 성의식 및 사회성 함양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학습 환경 및 제도적 여건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체육 교과를 실기 평가 위주의 운동 기능 수행에 천착하는 과목 정도로만 인식하며, 체육 교과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몸과 신체이미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연구 참여자들이 기억하는 학교에서 받은 몸과 관련한 신체 이미지 교육은 보편 시간에 받은 단편적이고 기초적인 이차성징과 성교육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이 역시도 지도 교사의 지식수준이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달

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고생들은 오히려 단정하고 학생다운 외모의 기준을 제시하며 단속, 규제하는 학생생활지도가 자신의 몸, 화장, 복장, 헤어스타일 등에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훈육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생활지도라는 명목 하에 외모 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다움’이라는 엄격함과 ‘여자애니까’라는 허용 사이의 모순도 지적한다. ‘여자애들이 립스틱 좀 바르는 게 어때서’,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내버려둬’라는 시각은 외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가 아닌, 여자가 여자답게 꾸미는 것은 미덕이라는 남성 중심적 관점에 기초하며, 이렇듯 모호한 기준은 여고생들에게 또 다른 방식의 성별화 된 몸 가꾸기 욕망을 발생시킨다.

여고생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일상화된 외모 지적과 평가로 인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토로하며 외모 한가지로 낮아진 자존감을 자신의 모든 것과 결부시킨다. 자존감을 획득하기 위한 여타의 자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고생들에게 타인의 인정과 평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부모와 또래를 경유한 자기개발 담론을 통해 여고생들은 공부 아니면 외모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고착화하며 자기감시와 자기 검열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부모와 또래집단의 평가로 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키우지 못한 채 몸의 자기결정권을 자기완성 프로젝트로 의미화 한다. 여고생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기준에 맞는 자본으로서의 상품성을 갖추기 위해 몸은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고 유순하며 가변적인 실체라 여긴다. 또한 ‘경쟁력 있는 몸’을 위한 노력은 ‘자기관리’의 맥락에서 스펙으로서 이해된다.

한국의 거대 성형 산업은 청소년들이 가진 다양한 자원과 능력을 키울 가능성과 경쟁력을 무력화하면서 몸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장소라고 주입한다. 이 과정에서 성형을 통해 신체 보수와 개선을 실천하는 여성들을 마치 적극적으로 자아를 개발하는 주체인양 추앙하면서 여고생들이 성형을 모방하도록 추동한다. 이처럼 성형수술을 자아연출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으로 포장하여, 표준에 맞지 않는 외모를 가진 여성들을 타자화 하면서 가부장제 사회, 소비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몸을 동질화함으로써 ‘외모가 곧 권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든다. 여고생들은 수술 부위, 수술법, 의사, 가격 및 서비스 등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성형을 신중하게 선택했노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성형을 유도하는 의료 산업의 작동 논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감시하고 규율하면서 성형을 소비하는 불완전한 주체로 호명된다.

성형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로 재창조 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몸을 경험한 여고생들은 변형된 몸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했다고 말한다. 외모에 따라 상이한 보상과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자아로 살아남기 위해서 후천적 노력이나 자본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몸을 투자, 관리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일이라 말한다. 이렇듯 있는 그대로의 몸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유순하고 획일화된 몸으로 길들여지면서, 자기 규율, 신체 감시를 강화하는 몸의 식민화 현상은 심화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SNS의 사용으로 일상화된 자기전시문화는 여고생들의 성형 실천의 뇌관으로 작동한다. 실시간으로 신체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인정투쟁의 공간에서 자신의 몸을 시각화하고 전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형은 자연스럽게 탈 신비화된다.

성형 후 연구 참여자들은 외모와 관련한 새로운 경험을 한다. 외모 차별주의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미를 구현한 몸은 신분상승을 한 듯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자신감 획득을 돕는다. 성형으로 경험한 변형 가능한 몸과 조형화된 몸의 열려진 가능성은, 몸 자본은 후천적 노력과 투자로 습득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며 새로운 욕망과 고민을 추동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성형 트렌드 역시 욕망의 기폭제로 기능하면서 여고생들은 소비문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몸을 또다시 쫓아가야 한다는 억압에 시달리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 여고생의 성형 경험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관점을 통해 해석과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을 함의한다. 여고생들의 성형 실행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여고생의 성형 경험을 둘러싼 젠더 동학을 다룬 논문들은 많지 않다. 특히 성형 수술 경험자들에 대해 자존감이 낮다는 식의 개인적/심리적 요인으로 치부하거나, 단순히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로 단정 짓는 시각을 지양하고, 성형을 실천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해 분석들을 통한 다층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성형을 하는 여고생들의 경험과 목소리로, 구체적 현실 상황에서 여성들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고 대응해 나가는가를 탐구하며, 그녀들의 성형



경험에서 드러난 모순, 갈등, 가능성을 추적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획일화되고 파편화된 그릇된 시각의 몸 담론에 대한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성형을 경험한 한국 여고생들의 경험과 그 해석에 주목하였기에 청소년기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개발 자료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성형 수술, 자기계발 담론, 신체 감시, 몸 담론, 유순한 몸, 여고생  
학 번: 2010-20206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선행연구 검토 .....	4
3. 이론적 배경 .....	6
1) 푸코의 정치학과 젠더 .....	6
2) 여성의 몸 .....	9
3) 자기계발 담론과 여성의 자기완성으로서의 성형 .....	11
4. 분석틀 .....	12
5.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	13
II. 여고생 성형의 사회문화적 배경 .....	16
1. 학교 제도적 영역 .....	16
1) 체육교과서와 학생생활지도 .....	16
2) “학생다움”과 “여자애니까” .....	17
2. 부모와 또래집단: 자기계발 대상으로서의 몸 .....	21
1) 자신감의 원천으로서의 몸과 성형 .....	21
2) 자기계발 대상으로서의 몸: “생긴 대로 살 수 없는 세상” .....	24
3) 청소년기 자기계발의 보상으로서의 성형 .....	28
3. 소셜 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자기 전시 문화 .....	29
4. 성형 산업 .....	34
III. 여고생의 성형 경험 .....	40
1. 수술 결정까지 .....	40
1) 부족한 외모: “성형해야 하는 얼굴” .....	40
2) 성형 전 슬한 실천들 .....	44

3) 자연스러운 변화: “친구들 다 하나까” .....	46
2. 수술과 회복 과정 .....	48
1) 아픔과 고통 .....	48
2) 후회 .....	51
3) 고통의 망각과 자기만족 .....	52
3. 수술 후의 고민들 .....	53
1) 자신감의 획득: “사회적인 미의 기준에 따라야” .....	53
2) 새로운 불안: “자연미인과 성형미인 사이” .....	55
3) “다시 성형할까?” .....	58
IV. 결론: 함의 및 제언 .....	62
참고 문헌 .....	66
Abstract .....	71

##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 특징 .....	15
-----------------------	----

## 그림 목차

〈그림 1〉 분석틀 .....	13
------------------	----

# I. 서론

## 1. 문제제기

우리사회의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는 한국을 전 세계에서 성형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sup>1)</sup>와 미국의 NBC<sup>2)</sup>는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인구 대비 성형 수술 비율이 명실 공히 세계 1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성형수술은 취업 및 인간관계의 필수조건처럼 간주되고 있다”고 NBC는 덧붙였다. 한편, 허핑턴포스트<sup>3)</sup>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전한 후보들의 얼굴이 모두 비슷비슷한 것은 성형 수술 때문일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한국 여성들의 얼굴은 놀라우리만치 비슷하다. 이는 한국이 성형공화국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CNN<sup>4)</sup> 역시 “한국이 세계 성형 수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으며 외모지상주의와 부작용 등 크고 작은 논란에도 성형 수술이 정체되었던 한국의 관광 산업을 살려내고 있다”며 한류를 내세워 의료 관광을 상품화하는 한국의 성형 산업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외환위기 이후, 외연적인 성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자기계발열풍과 과도한 스펙 쌓기 경쟁을 낳았다. 외모가 자기 관리의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기계발과 결합된 외모 스펙 쌓기 경쟁이 성형을 부추기고 있다. 성형 수술이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으며 성형 수술을 원하는 나이는 점점 낮아지면서 10대 청소년들까지 성형 열풍에 가세하고 있는 추세다. 올바른 신체상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인 청소년들의 몸에 까지 아름답고 이상적인 몸의 기준이 단일하게

---

1) “Plastic makes perfect: Where is most plastic surgery performed?”. Jan 30th 2013 by Economist.com

2) “Can’t afford Gangnam-style plastic surgery? Korean teens resort to DIY”. Dec 15 2013 by NBC.com

3) “Korea Pageant Contestants All Look Strikingly Similar, Commenters Find”. April 25 2013 by Huffingtonpost.com

4) “Welcome to the plastic surgery capital of the world: Why the Korean plastic surgery tourism boom is only going to get bigger”. Aug 9 2012 by edition.cnn.com

적용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아시아 9개국의 10대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청소년 가운데 외모 개선을 위해 성형 수술<sup>5)</sup>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59%에 달해 9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동아일보, 2006<sup>6)</sup>).

이같이 도를 넘는 성형 열풍의 이면에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거대 성형 시장의 논리가 작동한다.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포장된 의료 산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치 절대적 미의 기준인양 새로운 성형 트렌드를 과장되게 선전하고 무분별한 성형을 유도하면서 성형의 선택을 소비자 개인의 의지로 위치시킨다. 또한 미의 규격화를 여성들의 자기 연출 담론 안에 기능하도록 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외모의 문제로 환원시킨다. 여성들은 이러한 성형 시장의 논리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일찍부터 스스로 습관적이고 일상화된 신체감시<sup>7)</sup>와 통제를 실천한다. 문제는 이러한 억압적인 신체감시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으로 둔갑되어 강화되면서 여고생들의 무분별한 성형 실천을 추동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여고생들의 성형이 증가하는 이유를 사회문화적 맥락과 젠더 동학을 통해 살펴봐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16-18세 여고생들의 미용 성형수술 경험과 경험을 토대로 한 해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여고생 성형의 사회문화적 맥락 뿐 아니라 성형을 하는 개인들 각각의 행위성에 주목했다.

최근 몇 년간 여고생들이 실제 성형수술의 주요한 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의 미용성형에 대한 행위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젊은이들의 미용성형에 대한 연구는 김미란(2004)의 ‘남녀 대학생들의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인식’과 박찬석(2001)의 ‘대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조사연구’, 등 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있고,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는 최백화(2002)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등 미용성

5) 성형은 신체 외부에 발생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기형과 결손에 대해 형태와 동반되는 기능장애를 회복하고 외모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과의 한 분야로, 재건성형과 미용목적의 미용성형으로 나뉜다. 한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성형은 이 중 미용성형을 뜻한다. 기능상 장애가 없지만 타고난 인종이나 가계 특성, 또는 외상에 따른 흉터·노화에 따른 주름·작은 유방 등 신체 결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다. 하지만 미용성형이 강제를 보이면서 재건성형에도 미용성형 개념이 접목되는 등 사실상 두 분야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6) “[수도권] 한국 10대 소녀 77% 내 모습 싫어!”. 2006-10-9. dongA.com

7) 신체감시(body surveillance)란 자신을 대상화하여 타인의 시선에 자신의 신체를 마치 감시하듯이 바라보는 것으로, 신체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

형 수술에 대한 대학생과 일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정도가 눈에 띈다.

오늘날 한국의 여고생들이 보여주는 자신의 몸에 대한 태도에 대해 자율성, 자기표현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들이 이러한 가치를 자신의 외모에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기 형성의 실천을 행하며, 이러한 실천에 도입되는 문화적 자원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한국의 여고생들의 성형을 몸 프로젝트와 자기계발 담론과의 연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조형적 몸(plastic body)이란 언젠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사회가 원하는 경쟁력 있는 몸으로 실현 가능함을 의미하며, 이는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자기관리와 계발의 결과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몸 이외에 다른 능력이거나 가치에 대한 가능성은 차단한 채 대중매체와 의료 산업과 같은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 여성을 신자유주의 시대에 스스로의 몸을 경영과 투자의 대상으로 만드는 주체로서 위치시킨다. 여성들이 획득한 지식이 얼마나 정확한지와는 무관하게 여성의 몸은 의료공간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파편화되고 의학적인 수사들을 경유하여 상상되며 이는 여성 몸에 대한 대상화로 볼 수 있다(Thompson, 2005: 192-4; 재인용). 하지만 이 대상화는 여성이 ‘결핍된 몸’을 지닌 ‘결핍된 자아’가 아니라 이를 개선할 책임 있는 자아로 스스로를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행위성과 공존하는 특성을 보인다. 미용성형담론의 주요한 메시지는 더 나은 외모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고 이는 곧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형을 통한 변신은 단지 예뻐지고 싶은 욕망만이 아니라 자기 계발 담론과 결합하여 더 큰 호소력을 지니게 된다. 더 나은 나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성형을 선택하였고 변화된 몸은 긍정적인 정서와 삶의 활력을 자신에게 되돌려줄 것이라는 신념이 그것이다(태희원, 2012). 성형이 자기 계발을 위한 주체적인 선택으로 의미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성형은 어떻게 성형을 해야 하는가에 스스로 답하기 위한 준비와 학습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태희원, 2011a). 소녀들에게 외모 가꾸기는 ‘어떻게 보여 지는 지(looking)’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doing)’와 보다 관련이 있다(Budgeon, 2003).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오늘 한국 여고생에게 성형은 어떤 의미이며, 그들은 성형을 어떻게 경험하며, 성형 전후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연구문제 2. 한국 여고생의 성형경험은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는가? 여고생의 외

모와 얼굴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과 일상적 훈육이 여성들 개인에게 어떻게 작동되는가? 특히 학교라는 제도적 영역 내에서 여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외모/몸, 성형산업의 고객으로 호명되는 외모/몸, 또래와 친척 등 사회적 관계에서 선호되는 외모/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한국 여고생의 성형은 한국사회의 몸 프로젝트와 자기계발담론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여고생의 성형 경험은 자기 신체와 외모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작업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양식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성형 경험을 의미화 하는 과정에서 여고생들이 욕망하는 외모와 자기계발담론이 어떻게 얽혀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여성의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그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임소연(2000)은 미용성형수술환자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이 일반대상자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파악하였고, 임인숙(2002)은 한국사회에서 몸 관리가 보편화되는 현상은 상당 부분 몸 관리 산업들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부터 출발하여 미용성형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그 팽창 추세 및 광고 전략을 분석했다. 박연옥(2004)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 수술의 실태와 인식을 알아보고 미용성형 수술을 경험한 사람들과 원하는 사람들은 중심으로 그들의 구매의사 결정 시 요구되는 조건이나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 했으며 엄현신(2007)은 변화된 현대 여성의 얼굴 이미지와 미의식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손은정(2011)은 여대생의 성형수술 경험 여부와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라 심리사회적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격적 차원, 사회 문화적 차원, 경험적 차원, 신체상 차원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부정적 자의식과 자존감 등 심리사회적 특성 및 부적절한 주변인들의 지원 등을 성형 결정에 이르는 요인으로 지목하며 성형을 개인적 문제로 간주하였고, 여성들이 성형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간과 한 채 그 과

정에서 경험한 젠더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미용성형의 실천 방식에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행위성을 개인의 순수한 자유의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행위성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순간에 가능한 행위성의 양식들을 통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들이 교차하면서 드러내는 권력의 효과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한다(김은실, 2001; Fraser, 2003). 우경자(2002)는 성형의료산업과 여성의 외모주의와의 관계를 통해 현대사회의 기술자본이 여성의 몸을 훈육해가는 구조를 밝히기 위해 한국의 성형의료자본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것이 여성의 지지를 받으며 제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최현진(2004)은 여성들은 성형을 통해 단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거나 외모 가꾸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변형을 통해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계발과 자기 기획을 위한 주체적인 선택이 되고 있으며, 몸 변형을 통한 자기 배려의 실천은 이미 모든 세대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최옥선(2005)은 여성의 몸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담론들이 잡지라는 하나의 매체 속에서 어떻게 서로 유기적인 구조물로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것이 여성들로 하여금 몸의 주체, 성적 주체, 사회적 주체로서 위치시키는지 밝히고자 했다. 이영자(2006)는 주체화 양식이 개인의 자유와 저항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날씬한 몸 관리에서 오히려 지배 권력에 더 적극적(주체적)으로 편승하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과 이 때문에 지배 권력이 개인화되고 탈정치화 되는 형상에 대한 미시정치학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수안(2008)은 소비문화산업에서 보여주는 몸 이미지와 젠더화된 응시의 이론화작업을 목표로 몸 이미지와 젠더화된 응시를 중심으로 한 이론과, 이 개념적인 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산업, 특히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매스미디어에서 광고나 영화 속 여성이 어떻게 젠더화된 응시를 내면화하는가에 천착했다. 나윤경 외 4명(2009)은 십대들로 하여금 외모 중심적 인식을 ‘뼈딱하게’ 보도록 돕기 위한 교육적 개입은 첫째, 십대들에게 성형에 대한 욕망을 추동하고 외모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또래, 부모, 교사, 대중매체 등을 아우르는 일상문화, 둘째, 미의 기준을 생산하며 그것을 과학과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남성 중심적 성형의료산업 등에 대한 비판을 수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임인숙(2010)은 미용성형에 따른 부작용과 사망 사건을 다룬 한국의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성형공화국의 위험 실상을 드러내는 한편, 이런 위험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있는



의료정보 제공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전보경(2010)은 성형 중독 담론에 대한 분석과 그러한 담론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선풍기 아줌마' 한혜경의 자기 서사 분석을 통해 미용 성형의 급격한 대중화 추세 속에서 미용 성형과 성형 주체의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미용 성형이 외모주의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이 자아를 발명,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주체화 과정의 한 가지 형식으로 분석 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태희원(2011)은 미용성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준비하면서 미용성형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환자 주체들의 행위자성을 분석하여 미용성형이 정상화되고 있는 기제를 밝히고자 했다.

이들 연구는 여성의 성형을 사회문화적 맥락뿐 아니라 젠더 관점에서 다루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성형을 경험하는 개개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다루지 못하여, 그들의 행위, 경험과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 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 3. 이론적 배경

#### 1) 푸코의 정치학과 젠더

가부장제와 소비 사회에서 여성의 객체화/주체화된 몸에 작용하는 권력관계의 구도와 미시권력의 작동기제를 밝히는데 푸코의 '유순한 몸'과 '자기에의 배려'를 바탕으로 한 몸에 대한 계보학적 접근과 몸 담론은 유용하다.

푸코는 주체형성에 있어서 생체권력(bio-pouvoir)을 중시한다. 생체 권력과 그 지식체계는 규율권력과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 인간의 몸에 대한 제어장치<sup>8)</sup>로 작용한다. 인간 제어장치는 세부적 규제, 연습, 훈련, 평가, 감시 등을 통해 인간의 육체를 통제하고 길들여 '유순한 몸'으로 만든다. 푸코의 '유순한 몸'의 패러다임은 어느 사회에서나 매우 치밀한 권력/지식 관계<sup>9)</sup>의 그물망에 포착되어 구속, 금기, 통제의 대상

---

8) 푸코에 의하면 생체권력은 서구에서 17-18세기 이래로 규율(군대, 학교 등)과 인구조절(인구통계학, 수명, 건강, 출생률과 사망률 등)을 위한 해부정치학과 생명관리 정치학의 발달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섹슈얼리티, 혈연계승, 건강복지, 체형, 안전, 훈육, 감시, 성형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해 왔다(Foucault, M. 1976: 184-5).

이 되어온 현상을 주목한 것이다(푸코, 1995: 28-30). ‘유순한 몸’의 생산에서 생체권력의 자기주체화가 중요한 것은 일방적 강제가 아닌 몸주체의 자유에 의한 순응이며 이는 저항의 자유와 상통하며 권력의 불안정성이 갖는 정치성을 의미한다. 푸코는 권력이 일단 육체 위에서 효과를 발휘하면 역으로 저항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즉, 몸 권력은 외부 권력 지식 관계가 체현된 몸에서 생산되는 것이지만, 그 권력에 대해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 것이며, 그 자율성은 바로 몸 권력이 작동시키는 몸주체를 지배적 담론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체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푸코의 ‘유순한 몸’이 외부 권력관계들에 전적으로 예속된 타자화된 몸이 아니라 몸 권력의 자율성에 따라 작동되는 몸주체라는 것을 말한다(이영자, 2006).

푸코는 후기에 자아와의 관계와 자아의 기술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한다(Foucault, M. 1988: 785). 푸코는 권력 지식관계에 대한 탐구가 곧 자아와의 관계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다. 후기의 논의는 타인에 복종하는 주체에 관한 초기의 논의를 자아의 인지와 정체성에 의거한 주체로 발전시킨 것이다(Foucault, M. 1982: 227). 맥내이는 푸코가 후기에 와서 개인을 더 이상 유순한 몸의 일차원적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정한 구속들내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 양식들을 결정하는 자유로운 존재이자 자기결정의 행위자로 접근한 것으로 해석한다(Mcney, 1992: 73). ‘자기에의 배려’는 타율적 실천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서 자아형성, 자기인식, 자기훈련, 욕망과 쾌락의 활용 등의 주체화 양식으로 자아의 자기와의 관계(Les rapports de soi à soi)를 정립하는 것이다. 자아의 실천들은 개인이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강요된 권력 지식 관계들과 연계된 것이며, 존재의 기술들은 그 시대의 지배의 기술들(Les techniques de domination)에 의해 정의되고 과잉 결

9) 푸코는 “우리는 권력을 통해 진실의 생산에 예속되어 있으며 진리의 생산을 통하지 않고는 권력을 행사 할 수 없다”고 말한다(Gordon, C. 1995). 특정한 지식은 특정한 권력의 효과로 생산되는 것이자 또한 그 효과를 확장,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지식의 권력관계의 산물이자 권력의 작동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푸코에게 권력은 특정인에 의해 전유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와 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집단적, 구조적 효과로서 구조에 대응하여 작용하는 사회성과 같은 것이다. 권력 관계란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행위양식으로서 집중되지 않은 힘들의 역학, 즉 지배자의 의도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원과 여러 위치에서 나오는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역사적 형식이다. 권력관계가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푸코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Sawicki, J. 1996: 171), 권력의 물질적 기초, 즉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켜 주는 토대의 문제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정됨으로써 자율성이 침해되기 때문에(푸코, 2004a: 20) 존재의 기술들이 주체성의 실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는 갖는다(Foucault, M. 1984: 719)는 점을 인정했다. 주체형성에 대한 푸코의 계보학적 분석은 자아의 기술들이 지배의 기술들에 대해 구속성과 동시에 자율성을 갖는다는 상호작용에 주목한다(이영자, 2006). 예측의 실천, 문화적 구속들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의 실천들을 통해서건 주체형성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Foucault, M. 1984: 733). 푸코에게 자유란 권력관계들의 불안정성, 유동성, 가변성, 역전가능성을 말해주는 상대적 자유를 말한다(Sawicki, J. 1996: 171, 175). 푸코는 초기의 유순한 몸과는 대조적으로 후기 주체화양식을 통해 자기창조의 몸을 보여준다. 이 주체화 양식은 자아의 기술들이 지배의 기술들에 의해 구속을 받으면서도 존재의 미학에 의거하여 자기창조의 자유와 존재의 기술들의 개인적 선택을 담보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자아의 기술들은 몸의 주체화를 추구하는 자아의 욕망, 자유, 쾌락 그리고 개인이 속하거나 준거로 삼는 집단들, 성별, 계급, 인종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담론 기술들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지배기술들에 대해 자율성을 갖는다. 지배의 기술들은 획일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집단적 차이와 다양성을 매개로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푸코는 '자기의 배려'에서 윤리적 주체를 강조하는데,<sup>10)</sup> 이는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와 제약을 행사하는 하는 것으로서 '자아의 자기와의 관계'를 '자아에 대한 권력'으로 전도시키는 것이다.<sup>11)</sup> 자아에 대한 권력은 자기 변형과 자기의 적극적 창조를 요구하는 힘으로 자신에 대해 지배, 지휘권, 자제력의 관계를 확립하고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Foucault, M. 1984: 711-4; 푸코, 2004a: 103-7) 자아의 기술들이 지배의 기술들과의 관계와 역학구도를 자율적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자아에 대한 권력으로서의 몸 권력은 이러한 자아의 기술들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창조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아의 기술들은 지배의 기술들에

10) 여기서 윤리적 행동은 자아의 성취를 향한 것으로 고대 그리스의 윤리적 이상처럼 엄격한 자기통제와 자기훈육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Foucault, M. 1983: 557).

11) 푸코는 '가장 충만하고 능동적인 형태의 자유란 사람이 타인들에게 행하는 권력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권력이며(푸코, 2004a: 102), 진정한 자유란 자기 자신을 그 무엇의 노예로 만들지 않는 자기절제로 부터 나온다는 의미이며 능동적 자유로서의 자제의 개념'이 성립한다고 말한다. 그는 쾌락의 활용에 있어서도 자신을 스스로 덕성스럽고 절제력 있는 주체로 세우기 위해 '지배-복종, 명령-굴복, 억제-순종의 방식으로 자기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자신을 지배하는 힘을 강조한다(푸코, 2004a: 90-95).

대해 자율성을 갖는 주체화 양식으로 작용하고 몸 권력으로 하여금 자기창조의 몸과 자기통제의 몸을 작동하게 함으로써 초기의 유순한 몸에서 말하는 자기감시는 후기에 와서 몸주체가 자기창조를 위해 필요로 하는 몸 객체를 자율적으로 자기통제 하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유순한 몸’에 가해지는 생체권력의 훈육이 ‘자기에의 배려’에 의한 주체형성에서는 자아의 기술들을 실천하는 몸 권력을 통해 자율적인 자기훈육으로 전치되는 것이다(이영자, 2006).

## 2) 여성의 몸

몸을 순응성(docility)이 확보되고 주체성이 구성되는 장소로 본 푸코의 이론을 바탕으로 여성의 몸을 가부장적 권력의 작동 속에서 억압적 정체성과 주체성이 구성되는 장소로 본 페미니스트들도 있다(Bartky, Sandra Lee. 1990; Bordo, Susan. 1993a, 1993b; 프리가 하우스 외, 1983).<sup>12)</sup> 이들은 푸코가 “권력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작동하는 것이며 그 지점에서 자아와 주체성의 보편적인 형태는 주로 시선의 권력 작용에 의해 개인적인 자기 검열과 규범에 대한 ‘자기 교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순응적 육체가 된다.”고 지적한 지점, 그러면서도 “이러한 권력은 인간에게 욕망과 쾌락을 주고 지식을 만드는 생산적인 권력이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권력의 효과를 미쳐 권력의 효과로 깨닫지 못한 채 그 재생산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한 점에 주목하였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훈육된 몸을 만드는 가부장제 억압과 이 억압의 내면화로 인한 여성의 순응적 몸을 설명하는 데에도 푸코의 개념을 사용한다. 대부분 여성들의 의식 속에 판옵티콘의 감시관과 같은 남성 감식가가 상주하게 되는 것 (Bartky, Sandra Lee. 2001: 22-3)은 바로 여성의 몸이 가부장제 생체권력이 제공하는 여성성의 규율체제와 특수한 기술들을 능동적으로 습득하고, 이를 자신의 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여성의 ‘유순한 몸’은 가부장제 생체권력을 자신의 몸으로 전유하는 몸주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몸이라 할 수 있다.

나오미 울프(Wolf, N. 1992)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화(beauty myth)를 여성

12) Diamond, I. & Quinby, L. (eds.) 1988. “Introduction”. *Feminism and Foucault: Reflection on Resist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의 자유로부터 위협 받는 남성 지배적 제도의 정치적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으로 규정했다. 게다가 이것은 진화나 성, 성차, 미학 등에 근거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강요된 신체 기준에 따라, 여성들이 선택한 사회적 자리 매김이 아닌, 그저 여성들을 수직적 위계 서열에 맞춰 가치를 할당하는 구조에 의해 강화된 그저 '신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sup>13)</sup> 결국, 외모의 미적추구는 '권력관계의 한 표현'이며 생물학적, 성적, 진화적으로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남성들이 전유해온 자원을 두고 여성들이 투쟁해야하는 권력관계의 한 표현이며, 아름다움이란 보편적이지도 불변적이지도 않다고 말한다.

보르도(Bordo, Susan, 1993)<sup>14)</sup>는 여성의 몸에 대해 억압/피억압이라는 이분법적 근거로 접근한 전통적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외모, 지위, 인종, 경제적 수준 등 여성들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차이를 고려한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 그녀는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성형수술이라도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 선택이며, 즐겁고 행복한 자신의 삶을 만들기 위한 행위이기에 성형 수술을 여성 해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해 복잡하게 얽힌 사회 제도나 가치와 같은 성형 수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 찾기를 강조한다.

부르디외(Bourdieu, P. 1986)<sup>15)</sup>는 몸을 육체자본으로 보고 사회적 가치들과 연계되는 몸의 상품화를 지적했다. 몸을 상징가치의 담지체이자 육체자본의 한 형태로 본 부르디외는 육체 자본은 경제자본, 사회자본의 형태로 전환된다고 보았다. 또한 계급에 기반을 둔 자아 정체성으로 몸을 강조했다. 따라서 몸은 다양한 사회계급의 소비 관행에 따른 선택으로 특정 취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구별짓기' 하는 아비투스에 의존하며 특정한 몸의 형태에 부여된 상징가치에는 사회적 불평등이 구현된다고 보았다.

콕스(Cat Cox, 1992)는 가부장적 미의 규범이 소비 사회 속에서 여성의 몸에 편파적이고 기준적인 이미지화의 지배 권력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성형의료 기술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객관성에 대해 과학기술 자체가 남성성을 내

---

13) Wolf, N. 1991. *The Beauty myth*, London: Vintage.

14) Bordo, Susan. 1993. "Feminism, Foucault and the Politics of the Body". In *Up Against Foucault: Exploration of some tensions between Foucault and feminism*, ed. by Ramazanogh, C. New York: Routledge.

15)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eds.)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포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은 본질적으로 남성적인 것이며, 자연과 여성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끊임없이 추구해 온 남성들의 침입을 용이하게 만든 수단으로 본다. 따라서 여성과 기술의 조화는 여성성에 기반을 둔 기술 개발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sup>16)</sup> 성형 의료 기술이란 형태로 오랫동안 여성을 배제한 채 발전해 온 남성중심의 과학 기술이 대상화 되고 주변화 되어 온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현대 성형 의학은 외모주의와 결합하며 남성보다 여성의 몸에 빈번히 개입하면서 여성의 몸을 질병화하고 열등한 존재로 기술적 교정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위치시킨다. 결과적으로 성형 의료 기술은 여성의 입장이나 욕구로부터 생성된 것이 아니기에, 여성들에게 해결책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억압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 3) 자기계발 담론과 여성의 자기완성으로서의 성형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와 문화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은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통치성은 감시와 훈육 등 기존의 근대 권력 개념을 확장하는 것으로 지배의 테크놀로지와 자기의 테크놀로지가 만나는 접점에서 형성되는 주체화의 양식을 의미한다(푸코, 1994). 권력의 효과인 주체화는 규제의 테크놀로지가 일방적으로 지배의 대상으로 주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자기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스스로를 지배하는 자기의 테크놀로지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자유, 행복 등 비 물질적 가치들을 통해 개인의 정서(affect)를 조작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대중의 '동의'를 구축하는 특성을 지닌다(Jarrin, 2010; 권수현, 2010).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개인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구입할 소비자가 된다. 이로 인해 개인을 '기업가적인 자아'로 구성하면서 기술, 역량, 기질을 계발하여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인 언설은 개인의 삶 자체에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Gordon, 1991: 44). 과거에 상품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생명, 아름다움, 행복, 자기 계발, 치유와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까지 투자와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 되고 있다(김현미, 2010). 로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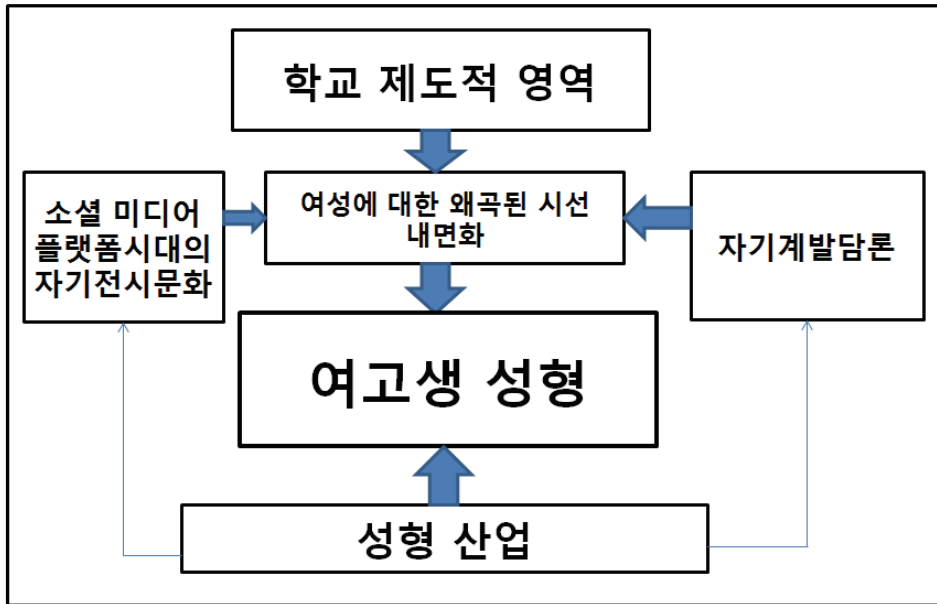
16) Cat, Cox. 1992. *Inventing Women: Science, Technology and Gender*, Cambridge: Polity Press, 282~293.

(Rose, 1998)는 더 나은 몸을 통해 더 나은 자아를 획득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삶의 능력으로 환원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현대 사회에서 의학의 성격 변화에 의해 지지되며 그 실행력을 확보한다. 의학은 더 이상 정상성과 질병의 구분에 있지 않으며, 나이듦의 문제, 재생산, 생명에의 위협, 삶 자체의 최적화(optimization)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Rose, 2006). 미용성형을 통한 ‘자아존중감’ 회복 논리는 자신의 몸과 자아를 돌보아야 할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문화적 논리와 공명하며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전도된 정신의학, 그리고 미용성형은 개인주의적 틀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구성한다(Fraser, 2003). 신자유주의적인 통치성은 미용성형 의료의 지배기술에 ‘동의’를 표현하면서 자기기술을 구사하는 여성들이 등장하는 최근의 현상을 고찰하는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들은 지배 기술과 자기 기술이 접점을 형성하면서 통치성의 기획이 성공하는 지점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지점 또한 존재함을 밝히는 해석은 상대적인 취약점을 보인다. 통치성은 그 자체가 믿을만하거나 합리적인 양식일 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다(Peterson, 1997; CHO, 2009).

#### 4. 분석틀

본 연구는 한국 여고생들의 성형 경험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이들은 각기 학교 제도적 영역,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의 내면화, 소셜 미디어 플랫폼시대의 자기전시문화, 자기계발 담론, 성형산업이다. 이들 다섯 가지 변수는 한국 여고생들의 성형 경험을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신체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주요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작동한다. 학교 제도적 영역에서 다뤄지는 신체와 몸에 대한 교육은 체육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바른 자세, 체중조절, 신체 이미지 교육과 학생 생활지도에 의한 복장과 두발규제로 일상적으로 여고생들의 몸에 강력하게 작동하는 훈육방식이다. 부모와 또래 집단과 같이 유의미한 타인을 경유한 자기계발 담론은 지속적이고 반복된 신체감시를 내면화 하며 성형을 추동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자기전시문화는 일상화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작동하며 여고생의 성형 실천을 이끈다. 거대 성형 산업에 의해 생성된 담론은 남성 중심적 미의 기준을 소비하도록 강요하며 여고생 성형의 접근성과 성취 가능성을 주입한다.



〈그림 1〉 분석틀

## 5.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그간 성형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은 그들의 경험과 행위성을 심도 있게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고생들의 성형 경험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고 그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은 피면담자의 삶과 경험과 상황을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들과 연구자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만남을 지속시키는 방법(조영달, 2005: 113)으로 성형을 경험한 여고생의 생각, 상황,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당사자의 언어로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여고생의 성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행위성에 주목하기 위한 역학관계와 맥락을 포착하는 데도 유용하다.

인터뷰로 수집된 자료는 밴 매넨(Manen, Van.)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현상학은 체험의 본질을 포착하여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이며(Manen, Van. 1990: 57-8), “해석하는 것은 ‘텍스트의 앞에(in front of the text)’ 전개되는 세계 내의 존재 유형을 해명하는 것(Ricoeur, 1981: 141; 이희영, 2011: 113 재인용)”이다. 현상학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며 물음의 본질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열려 있게 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물음은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자에 의해 살아져야(lived) 한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물음은 언제나 우리의 세계로, 우리의 생활로, 현재의 우리로 함께 읽고 쓰고 함께 이야기 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계속 상기한다. 즉 그것은 말, 발화, 언어 뒤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상학은 본질에 대한 연구다. 본질이라는 말은 언어적 구성물, 즉 현상에 대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떤 것의 본질을 구성하는 좋은 기술은 우리가 지금까지 못 보던 방식으로 체험의 본성과 의의를 파악할 수 있게끔 체험의 구조를 드러내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의 본성, 세계 안에 존재하는 특정한 방식에 대한 물음이며 인간 경험의 본성에 대한 가능한 해석을 구성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언어, 신념, 문화 그리고 사회적 관습 등에 내재해 있는 체험의 내적 의미 구조를 드러내고 기술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도우며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적 통찰을 갖게 한다. 따라서 성형 수술을 실천한 여고생들 당사자는 성형 수술 결정과 과정 수술 후의 고민들에 관한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고생의 성형 경험은 다양하고 복잡한 체계와 상호작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그들의 체험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형을 경험한 여고생 개인의 체험을 담은 텍스트를 통해 이들을 둘러싼 세계를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현상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 방식으로 표집하였다. 연구자는 2016에서 2017까지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미용 성형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는 학생들 중 연구 참여 의향을 밝힌 학생을 인터뷰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미용 성형을 경험한 또 다른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일대일로 학교 근처에서 2-3시간동안 인터뷰 하였다.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으로 미용 성형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검정고시준비 중) 16세~19세(1998년~2001년 출생) 여성들이며, 모두 성형 수술을 경험했다. 이들 부모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태어나 자기계발 담론의 수용과 소비가 한국 여성 자아 기획 현상으로 자리 잡았던 1990년대에 20대를 보내며 자기계발담론에 익숙해진 세대이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징

	이름 (가명)	출생년도 (학년)	학교/전공(지방)	성형 수술 경험
1	유지나	1999(고2)	특성화고	쌍꺼풀 (절개법, 앞트임, 눈매라인)
2	이시안	1999(고2)	인문계고/미술	코수술 (코끝, 코볼, 콧망울 축소)
3	김은서	2000(고1)	고교 자퇴 후 검정고시 준비	코수술 (기능능연골)
4	윤지우	1999(고2)	인문계고	쌍꺼풀 수술 2회 - 쌍꺼풀 (비절개, 매물법, 뒤밀트임), (자연유착, 눈매교정, 앞트임)
5	장규리	1999(고2)	특성화고/승무원	쌍꺼풀 (앞트임, 위트임, 눈매교정 인아웃 라인)
6	박하늘	1999(고2)	예술고/미술	쌍꺼풀 (절개 눈매교정, 앞트임, 인아웃), 코수술(실리콘 삽입)
7	조유빈	1999(고2)	인문계고/무용	복합 부위 수술 3회 - 쌍꺼풀 (눈매교정, 비절개 자연유착, 앞트임 인아웃 라인), 안면윤곽, 앞쌍대팔리, 코수술 (콧대실리콘, 코끝 비중격, 귀연골)
8	이새롬	1999(고2)	특성화고	코수술 (매부리코/복코 교정, 지방이식)
9	이다희	1999(고2)	특성화고	쌍꺼풀 수술 2회 - 쌍꺼풀 (하안검 내반증), (자연유착, 비절개 눈매교정, 앞트임, 뒤트임, 위트임, 밀트임)
10	신시아	1998(고2)	특성화고	쌍꺼풀 (자연유착매물, 뒤트임)
11	홍시우	1999(고2)	특성화고/가수지방/ 입)	쌍꺼풀 (자연유착, 눈매교정, 앞트임, 밀트임, 뒤트임)
12	송혜인	1999(고2)	특성화고	쌍꺼풀 (비절개 눈매교정, 앞트임, 자연유착 이중매물)

## II. 여고생 성형의 사회문화적 배경

### 1. 학교 제도적 영역

#### 1) 체육교과서와 학생생활지도

학교에서 여고생들의 신체/몸에 대한 교육은 체육교과와 생활지도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 자료집에 따르면 학교 체육 교과서는 신체 이미지에 대한 교육에서 신체이미지의 개념, 신체이미지의 혼란, 자기 존중감에 대해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이 이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학교 제도권 영역 안에서 교육으로서의 신체이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애초에 교사의 재량과 지식수준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을 드러낸다. 체육 교과서는 바른 자세와 신체 이미지에 대한 교육을 권하지만,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이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 시간에 받은 신체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학교에서 올바른 신체상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성교육은 비디오 틀어놓고 시청하는데 근데 잘 안보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신체이미지에 대한 교육은 안 받아봤어요. 체육 교과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직접 본적이 없어서... (웃음) 체육은 경기의 순서, 농구는 몇 명 필요한가 뭐 그런 게 시험 문제라 내가 그 수업시간에 자서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신체에 대한 건 기억도 없고 그런 시험은 없었던 거 같아요.” (이시안)

“체육수업시간에 올바른 신체이미지는 배운 기억이 없어요. 혹시 체육이 보건의 예요? 체육책은 원래 시험 전에만 꺼내니까. 중학교 때 보건시간에 1학기에 두 번 정도 성에 대한 걸 배울 때 몸도 조금 나온 같아요. 이차 성징 같은... 보건시간에 만화로 된 이차성징 청소년기 변화 남자 여자 변화... 뭐 이런 거 배운 기억은 있

어요. 고등학교 때는 1학년 때만 성교육 받은 기억이 있고” (신시아)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에서 몸과 관련하여 받은 공식적인 교육은 체육 교과가 아닌 보건 시간이나 시청각 자료를 통해 전달된 성교육이 전부였다.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성교육과 관련한 이차성징을 신체이미지 교육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학생생활지도는 일상적으로 여고생들에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몸에 대한 훈육방식이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에도 사실상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 생활지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제가 머리가 길었는데 일단 생활지도 선생님은 교문에만 있으니까 그것만 피하면 우선은 되니까. (중략) 근데 수업시간에도 교과목 선생님 중에 잡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수업시간엔 어차피 제 앞모습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선생님 수업 전에는 쉬는 시간에 머리를 아예 묶어 버리죠. 전화기 머리끈으로 잠깐 수업시간에 묶으면 나중에 수업 끝나고 풀어도 머리 묶은 자국 티가 절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끈이 유행이 된 거예요.” (이새롬)

학생생활지도는 교문 앞뿐만 아니라 수업시간까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참여자 이새롬의 인터뷰처럼 여고생들은 자신의 몸, 화장, 복장, 헤어스타일 등 학교가 제시한 생활지도 기준 내에서 기준을 지키거나 변형시키며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 2) “학생다움”과 “여자애니까”

생활지도는 주로 여고생의 화장, 염색, 치마길이를 단속하며 ‘공부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학교와는 걸맞지 않다는 논리다. ‘단정함’과 ‘학생다움’을 근거로 학교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걸맞은 옷차림을 하도록 가르친다. ‘면학 분위기’, ‘단정한 옷차림’, ‘학생다움’이라는 말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사용되지만은 않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규제와 단속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토로한다.

“과학 쌤이 담임이었는데 깐깐하거든요, 저를 보더니 탈색도 아닌데 염색 했니? 엄청 뭐라고 하더니 미쳤냐면서 방학도 아닌데 왜 했냐고... 아니, 고3들도 다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을 학교란 틀에다 가둬놓고 단속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신시아)

“남녀공학에선 한번에 한두 명 빼곤 화장 다 해요. (중략) 여고면 솔직히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게다가 요즘엔 학교마다 규정이 다 달라서 제 베프가 여고를 갔는데 거긴 염색이랑 화장 다 하고 다녀서 엄청 부러워요. 남녀공학은 남자애들도 몰래 립밤에 고데기 하고 다녀요.” (이시안)

“(지금 학교는 치마 단속 심한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복장규정도 너무 심한 건 뭐라고 하지만... 촌이라 그런가? 교복자체도 워낙 짧게 나왔어요. 웃긴 게 학교에서도 어차피 애들이 줄일 테니까 애초에 원단가격을 아낀다고 허벅지에서 무릎 위 5센티 정도 되는 길이였죠. 그 때가 그리워요.” (신시아)

두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처럼,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기준이 다르다. 염색을 했다고 “미쳤냐”라는 말을 공공 공간에서 들어야 하는 신시아의 경험은 생활지도 대상 학생이 되었을 때 겪는 모멸감과 함께 모호한 기준을 드러낸다. 신시아의 인터뷰는 화장과 성적의 연관관계에 대한 교사의 해석과 통제를 보여준다.

“제가 중1때는 화장도 안하고 멋도 안 부리고 공부만 진짜 열심히 해서 전교 20등 안에 항상 들었었어요. 갑자기 중 2때 무조건 노는 게 더 좋고 공부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죠. 그 때부터 파마하고 화장하고 염색하고 꾸미긴 했지만 그러느라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 담임이 저를 불러다가 “네가 화장하느라 정신 팔려서 그렇게 하구 다니니까 성적도 떨어진 거”라며 양아치라고 매도하더라고요.” (신시아)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공부가 아닌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양아치”라는 말로 비난받는다.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은 여학생의 외모는 학교 공동체에서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공부해야 할 학교에서 외모나 신경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명분을 앞세운다. 여학생들은 자신을 꾸미는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 학교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판단하지 못하는 존재로 매도된다.

“남녀공학은 남자애들도 몰래 립밤에 고데기 하고 다녀요. 대놓고 화장하면 여자애들이 욕할 수 있고 하니까. 대신 남자애들은 교복에 알맞은 후드티나 신발 이런 거에 신경 엄청 쓰죠. 그리고 워낙 요즘 남자 아이돌 영향이 크니까, 롱패딩도 연예인들 메이킹 필름 같은데 자주 나오니까 다 그거 보고 따라 입는 거예요.” (이시안)

남학생의 화장은 단속 대상이 아니며 여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두발과 복장 규제는 남학생들과는 다른 잣대가 동원 된다. 학교에서 화장하고 고데기를 사용하는 여학생 특유의 적극적 외모 가꾸기 행동을 ‘학생답지 않은 행동’으로 규정하는 학생생활지도는 여고생들의 일상화된 몸 가꾸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화장이랑 염색을 시작했어요. (중략) 전부 다 화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 봤는데 그 전 안했던 얼굴보다 좀 나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고 다녔어요. 진짜 틴트는 안 바르더라도 기본으로 비비는 늘 바르고 다녔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막 아이라인 그리고 진하게 하는 티 나는 화장한 건 뭐라고 하고 잡는데 비비랑 틴트 정도 거기까진 진짜 너무 많이 하고 다니기도 하고, 요즘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 같아요.” (이새롬)

‘여자애니까 내버려둬’, ‘애들이 립스틱 좀 바르는 게 어때서’,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내버려둬’라는 논리는 여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가 아닌 여자가 여자답게 꾸미는 것은 미덕이라는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학생생활지도는 주로 교문 앞에서 생활지도교사가 학생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실 생활지도 선생님 나와 있기 전에 아침에 일찍 오면 안 잡히거든요. 전 그래서 만날 아침 일찍 와요. 그러다가 볼일 있을 때 교무실에 갔는데 하필 생활지도 쌤이 지나가면서 아니 자기 갈 길이나 갈 것이지 ‘그렇게 까지 해서 염색하고 싶냐? 근데 내가 너 왜 못 잡았지?’ 짜증나게 꼭 한마디씩을 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 마다 교무실로 불러서 계속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다리가 짧아서 교복도 긴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중간한 길이는 다리 더 짧아 보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제가 그렇게 엄청 짧게 줄인 것도 아닌데

또 뭐 요즘에 저희 학교에선 남자선생님이 단속해서 여자애들 잡으면 그것도 뭐 성문제 때문에 그렇다면서 자기들이 중학교 홍보 나갈 때는 우리 학교가 자유롭고 학생 존중한다고 엄청 떠들지만 일단 오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신시아)

“교복치마는 중학교 때부터 무릎위로 올라가게 줄여 입고 다녔는데 친구들 치마도 다 짧아서 당연한 거였어요. 어떤 친구는 교복치마를 두 개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 안 줄인 거 입고, 교실 들어오자마자 짧은 걸로 다시 갈아입고 그러는데 저는 비겁하게 그러지 않고 저만의 비법이 있어서 교복 치마 길이로는 잘 안 걸렸는데, 일단 교복밖에 엉덩이 까지 내려오는 박시한 큰 후드 집업을 입고 가요. 후드 지퍼를 채운다음 끝까지 지퍼를 올리고 엉덩이 까지 최대한 내려요. 그럼 그 안에서 치마 옆 지퍼를 내려서 엉덩이 중간까지 끌어내려서 치마가 최대한 무릎까지 내려오게 하면 되요. 그 상태로 교문 앞만 지나가면 되니까 혹시나 치마가 흐르지 않게 붙잡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어가요. 혹시나 저를 계속 지켜 볼 수도 있으니까 건물 앞에 들어가기 전까진 조심하죠.” (이새롬)

“염색은 많이들 하거든요. 제가 머리가 길었는데 일단 생활지도 선생님은 교문에만 있으니까 그것만 피하면 우선은 되니까 걸리지 않게 할 라고 긴 머리를 듬성 듬성 자연스럽게 옷 안에 넣어서 단발머리처럼 보이게 할 라고 감추거나 겨울에는 목도리로 둥둥 감아서 최대한 머리카락이 나오는걸 보이지 않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수업시간에도 교과목 선생님 중에 잡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수업시간엔 어차피 제 앞모습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선생님 수업 전에는 쉬는 시간에 머리를 아예 묶어 버리죠.” (이새롬)

학교생활지도에서 화장과 파마, 염색의 여부는 ‘노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뀌며 학생들은 단정함과 정숙함을 요구하는 생활지도에 대해 적당히 따르고 무시하면서 학교생활을 한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며 틈틈이 외모를 꾸민다. 점심시간을 위해 수업시간에 ‘구르프(헤어롤)’을 말고 고데기를 생활화한다. 비비와 틴트를 바르고 수시로 화장을 고치며, 교복을 짧게 수선한 ‘짧치’를 입는다. 여성적 몸을 만들어 내기 위한 수많은 기교와 훈육은 여성의 일상적 행동을 규제한다 (Bartky, Sandra Lee, 1988: 64). 학생들은 외모 가꾸기를 자기표현 방법으로 일상화 하지만 스스로 일탈 행위라는 기준도 내면화 하고 있다.

“게다가 이 학교는 생활지도는 왜 이렇게 열심히 잡는지... 전 그래서 아예 학교를 진짜 아침 일찍 가요. 교복도 줄였고 염색도 했거든요, 애매하게 염색을 했을 때는 빠른 걸음으로만 걸어가도 되요. 근데 탈색을 한 애들은 등교시간에 등교를 못하죠. 백퍼 걸리니까. 아예 일찍 가거나 늦게 가요. 전 그래서 교복치마도 아예 등교용이랑 교내용 두 개 가지고 다녀요. 교복이 여성복이나 기성복 같은 옷이 아니니까 당연히 줄여야만 해요. 내 몸에 핏 되는 게 예뻐 보이니까 딱 맞게 입는 게 좋아요. 투명 귀걸이도 뚫고 다니고... 그러면서 내 안의 나의 정체성을 찾아요.” (이시안)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생활지도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규제를 하니깐 그나마 덜 하게 되긴 해요. 그리고 꾸미는데 관심 없는 애들도 복장 규제 안하고 자유로운 환경이라면 자기 혼자 안 꾸미고 다니긴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애들이 다 꾸미니까요.” (이새롬)

교문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를 통과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이새롬은 그래도 학생생활지도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교 교육에서의 일탈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사하지만 느슨하게 모방된다. ‘학생다움’과 ‘여자애니까’라는 기준은 여학생의 몸 가꾸기에 또 다른 욕망으로 기능하며 허용과 규제를 넘나들고 있다.

## 2. 부모와 또래집단: 자기계발 대상으로서의 몸

### 1) 자신감의 원천으로서의 몸과 성형

연구 참여자들은 성형 전 자신의 외모에 대한 주변의 평가를 인용 하면서 “성형이 필요한 얼굴”이었다고 표현한다. 가족이나 친지등 주변인들의 일상적인 발화를 통해 외모의 정상성과 일탈의 기준은 확대 재생산되며 사회적 기준으로 자리잡는다.

“아버지 직장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을 인도네시아에서 살았어요. 저희 반에 쌍꺼풀이 없는 학생은 진짜 딱 저 한명인거예요. 제 눈이 눈꺼풀도 얇고 돌출 눈이



거든요. 같은 반 애들이 늘 제 쌍꺼풀 없는 눈을 보고 난 왜 쌍꺼풀이 없냐고 묻  
기고 하고 제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놀림을 진짜 많이 받아서 어릴 적부터  
상처를 받았죠.” (송혜인)

“제 코가 남자 코 같이 크고 살짝 매부리코 같아서 콤플렉스가 심했어요. 고모  
가 둘 있는데 키도 늘씬하고 피부도 좋고 전부 예뻐요, 명절이나 가족모임에서 오  
면 늘 저를 보면서 코 때문에 어딘가 아쉬운 얼굴이라며 엄마한테 탄 건 몰라도  
꼭 코 성형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새롬)

또래 친구들이나 친지들에 의해 농담처럼 시작된 일상화된 외모 지적은 ‘어딘가 아  
쉬운 얼굴’과 같이 희화화되기도 하지만 ‘죄를 지은 듯’ 죄책감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기도 한다. 유의미한 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외모 평가나 성형 권유를 받아  
온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형은 비판적이지 않게 수용되며 희망적 대안으로 자리 잡는  
다.

“고1 때부터 친해진 친구들이랑 쌍수 이야기 진짜 많이 한 거 같아요. 쌍수해서  
누가 더 졸업앨범사진에 예쁘게 나오는지가 최고의 관심사였죠. TV에 나오는 연예  
인들은 과거 즐사랑 비교해서 보면 요즘엔 죄다 눈도 크고 하나같이 너무 예뻐졌  
잖아요. 진짜 인정.” (신시아)

“걸그룹 아이돌 멤버 설현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면서 다이어트와 성형으로  
놀랍게 변한 외모로 인기가 높아지고 CF 도 많이 찍는 것을 보면 역시 여자는 다  
이러트와 성형으로 인생이 한방에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유지나)

“그 때부터 화장 했던 애들은 처음엔 보면 연예인이나 아이돌 같이 눈도 크고  
뚜렷해 보이는 메이크업 한다고 그냥 막 무조건 진하게 하는 거예요. 배움 없이...  
똑같이 따라하지도 못하면서.” (이시안)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또래 여성 연예인이나 같은 반 친구, 사촌언니의 성공적인 성  
형 결과는 이들에게 도달하기 힘든 몸과 이상화된 얼굴조차 개인의 노력과 투자로  
극복될 수 있는 대상임을 일깨워준다. 유지나는 단순히 외모 변신만으로 유명해진 연

예인을 보며 관리되어진 몸은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공하는 훌륭한 자원이며 돈과 시간을 들여 노력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몸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체가 만들어 내는 이상적인 외모를 가진 또래 연예인은 연구 참여자에게 외모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을 느끼며 모방심리를 더욱 강하게 심어준다. 유지나와 신시아는 성형으로 성공한 연예인을 보며 졸업앨범이 자신의 치부를 역력히 드러내는 역변의 증거자료로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후 성형을 결심한다. 이시안의 말처럼 여고생들은 또래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의 진하고 또렷한 화장을 ‘배움 없이’무조건 따라한다. 여고생들은 맹목적으로 똑같은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그 속에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막상 쌍수 하겠다고 하고 수술 결정한 게 며칠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거죠. 친구들이 다 하니까. 쌍수 한다고 더 예뻐지란 보장도 없는데 말이에요. 친구들이 제 눈을 보면서 네 눈썹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쌍꺼풀이 없어서 그런 거고, 너도 쌍수만 하면 예뻐서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을 하면 예뻐 보이지만 쌍얼이 좀 애매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결심했어요. (중략) 저희 반에 평생 한 번도 예쁘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던 진짜 세상 비호감으로 못생겼던 애가 쌍수를 엄청 하고 눈 모양을 완전히 바꾸고 예뻐져서 호감형 얼굴이 됐는데, 쌍수 한 후 쌍얼은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 갠 아예 아침부터 화떡으로 오거든요. 웃긴 건 자기도 성형해서 예뻐진 주제에 자신감 만렙 상승해서 성형 안한 애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막 나가 는 거 있죠. 아주 웃겨요.” (신시아)

신시아는 또래의 성형, 얼굴의 변화, 주변의 변화된 시선 및 인정을 지켜보며 성형 자체를 특별한 선택이 아닌 간편하게 누구나 노력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 후 “나도 할까?” 생각한다. 또래의 성형 성공은 여고생들로 하여금 성형 수술을 자신감 획득의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써 기능하게 한다.

“성형 후 렌즈를 끼고 학교를 가는 일이 많아지고 진짜 인상자체가 달라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화장도 만날 하고 화장하는 낙에 살아요. 같은 반 친구들 중에 무쌍인 친구들한테 고민하지 말고 얼른 수술하고 예뻐지라고 말해줬어요. 주위에서 자리 잘 잡고 자연스럽게 됐다고 저보다 더 좋아하네요.” (이다희)

“코 수술하길 정말 잘했어요. 뭔가 자기의 콤플렉스가 있다면 걱정만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새롬)

“제가 고등학교를 1년 꿰었잖아요. 인문계를 갔다가 자퇴를 하고 다시 특성화를 온 거예요. 지금은 재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무렇지 않지만, 처음에 나는 짝 애들보다 늙었다는 자괴감 같은 게 있어서 최대한 눈에 안 떨 라고 안 꾸미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1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강남에 있는 좀 비싼 미용실에 가서 파마랑 염색을 하고 왔는데 애들이 먼저 와서 공주머리같이 너무 예쁘다고들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진짜 꾸몄을 때 더더욱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촌스럽게 다니는 것 보단 나은 것 같아요.” (신시아)

신시아는 외모로 또래들 사이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과거에 대해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인생이 재미가 없었다.” 말하며 외모 한가지로 낮아진 자존감을 자신의 삶 모든 것과 결부시킨다. 여고생들은 자신의 성별에 맞는 몸,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기준의 몸을 만들기 위해 날마다 몸 가꾸기에 매진한다. 자본으로서의 상품성을 갖추기 위해 몸은 언제든지 변화 가능한 유연하며 가변적인 실체라 여긴다. 새로운 스타일로 재창조 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몸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변형된 몸이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차별화의 중심으로서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 2) 자기계발 대상으로서의 몸: “생긴 대로 살 수 없는 세상”

여고생에게 성형 수술은 자기계발의 한 형태인 스펙이 된다. 자아존중감을 획득하기 위한 여타의 자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고생들에게 타인의 인정과 평가는 중요하다. 부모와 또래집단의 평가로 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키우지 못한 여고생들은 유의미한 타인인 부모와 또래 집단의 인정과 평가에 의해 규정된 자기계발 담론과 몸의 자기결정권을 자기완성 프로젝트로 의미화한다. 부모와 또래를 정유한 자기계발 담론을 통해 여고생들은 공부 아니면 외모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고착화하며 자기감시와 자기 검열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경쟁력 있는 몸’을 가꾸기 위한 노력은 ‘자기관리’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고생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기준의 몸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한다.

“근데 고 2 여름 방학 때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자연 유착이랑 앞트임을 하고 학교에 왔는데 애초부터 붓기고 별로 없고 티도 진짜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결심했죠. 아 저렇게 자연스러운 거면 나도 얼른 해야겠다. 엄마도 평소에도 저보면서 이제는 생김 대로 살아서는 살아 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늘 말 하면서 제 얼굴에서 쌍꺼풀 수술을 기본으로 해야만 정리가 된다고 말 했거든요.” (유지나)

유지나는 엄마로부터 “생김 대로 살아서는 살아 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외모 차별주의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미의 구현을 위해 후천적 노력과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전달되며 학습된다. 유지나는 자라면서 엄마로부터 외모에 대한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전달받으며,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무비판적 자세를 취한다.

“엄마는 중학교 수학선생님인데 20여 년 전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쌍꺼풀과 코 수술을 한꺼번에 하셨대요. 그리고 아빠 만나서 결혼할 때는 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을 다 없앴대요, 증거인멸 중요하다면서. (웃음) 엄마는 제 무쌍에 낮은 코를 보면서 반드시 눈과 코 수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얼굴이라고 농담처럼 말하셨어요.” (박하늘)

박하늘의 엄마도 “반드시 눈과 코를 수술 해줘야 한다” 농담처럼 딸의 외모를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규정된 외모의 기준과 성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전달자 역할을 한다. 여고생들에게 같은 여자인 엄마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파편화되고 조형화된 여성의 몸의 위계화를 강화하는 주요한 전달자가 된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화장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화장하는걸 아시고 화장을 이왕 시작했으면 싸구려 아무거나 쓰지 말고 좋은 화장품을 쓰라고 아예 사다주세요. 제가 엄마 닮아서 피부에 아무거나 바르면 진짜 트러블이 많이 나는 피부라서.” (홍시우)

“로드샵 제품들은 용돈 받을 걸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처음엔 그런 것들 위주로 썼죠, 화장을 해보니 눈이 커지고 얼굴 하얗고 입술 빨간 게 너무 예뻐 보여서 틴트를 과하게 바르고 다녔어요. 써클 렌즈도 그때부터 끼고 다녔죠. 엄마는 딱히 제 화장에 대해 진하다 어떻다 그런 말씀 없으셨고 별 말은 안했어요.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하고 다니니까.” (이시안)

홍시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화장을 시작했다. 그녀의 엄마는 이왕 시작했으면 ‘짜구려’를 쓰지 말고 좋은 화장품을 쓰라며 어린 딸이 화장 하는 것 자체를 개의치 않는다. 이시안의 엄마 역시 다른 애들도 다 한다는 써클 렌즈를 끼고 비비와 틴트를 진하게 바르는 딸을 보며 별 말이 없다. 요즘 엄마들에게 어린 딸의 화장은 크게 화를 낼 일도, 혼을 낼 일은 더욱 아닌 것이 되었다.

“우리 엄마도 대학교 불자마자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하고 코 수술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코가 살짝 좀 망 느낌이에요. (웃음) 저희 엄마(48)는 커피전문점을 하고 계신데, 예전엔 얼굴이 사각턱이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턱 보톡스, 눈가 보톡스를 맞고 이마와 팔자주름에 필러를 맞아서 그런지 또래보다 어려보이세요. 경락 마사지를 같이 하는데 진짜 다른 게 경락 마사지를 하고 근육을 풀어준 다음에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니까 엄마 예전 사진이랑 비교하면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아주 반쪽.” (유지나)

“엄마는 인도네시아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시느라 진짜 눈 코 뜯 새 없이 바빴거든요. 엄마도 한국에 와서 저랑 같이 성형외과 상담 받다가 피부 주름관리 리프팅 시술과 자가 지방 주입을 이용한 눈 밑 꺼짐 및 양볼 처짐 수술을 했어요.” (송혜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엄마는 통념화된 사회적 기준의 미를 전달자하는 유의미한 타인이다. 유지나의 엄마도 10대 후반 - 20대 초반에 눈과 코 두 번의 성형을 경험했으며 자기계발이라는 명목 하에 여전히 정기적으로 안티 에이징 시술을 받으며 외모 관리를 하고 있다. 송혜인의 엄마는 딸의 성형 상담을 위해 성형외과에 함께 갔다가 안티 에이징 수술을 받으며 모녀 동반 성형 수술을 실천한다.

외모를 최고의 자원이자 스펙으로 우선시하는 경향은, 특정한 직업군을 꿈으로 가

진 여고생들에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외모에 근거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승무원의 꿈을 위해 성형 수술을 한 연구 참여자는 취업을 위한 스펙 갖추기로 성형은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갑자기 비행기 승무원이 되고 싶더라고요. 승무원 학원 상담선생님이 제 나이라 학교 성적을 물어 보더니, ‘지금 딱 적기라면서 쌍꺼풀을 해 놓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티도 안 나고 자연스러워 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략) 엄마한테 말했더니 ‘하긴 요즘에 제일 간단한 게 쌍꺼풀 수술인데 너만 없는 게 더 이상하지’ 하면서 여건이 되는 한 뒷바라지 해주시겠다고 쌍꺼풀 수술을 하라고 허락해주셨어요.” (장규리)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외모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적기라는 승무원 학원 상담선생님의 성형 권유는 장규리가 성형을 결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장규리의 엄마 역시 “너만 쌍꺼풀이 없는 게 이상하지”라며 여성의 몸에 대한 파편화되고 획일화된 인식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외모에 근거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자아로 살아남기 위해 여고생들은 후천적 노력이나 자본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몸에 투자하고 몸을 관리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항공운항과에 입학한 선배들의 후기를 읽어보니 키가 170이상이라도 몸무게가 50킬로그램 이상이면 뚱뚱해보이고 다리가 일자로 붙어야 한다는 말에 복싱학원에 등록해서 다이어트복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물만 마셔도 잘 붓는 체질이라 다이어트 식단으로만 싸가지고 가요. 학교 급식을 자제하고 고구마와 삶은 달걀 닭 가슴살 그리고 사과만을 먹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항공운항과는 수능 성적보다 외모가 예쁘면 유리하다는 정보가 많길래 다이어트를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이예요.” (장규리)

쌍꺼풀 수술 이후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한 장규리는 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자아계발의 담지체이며, 자기조절과 절제력을 통해 통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고생들의 성형수술과 외모/몸 가꾸기에 관한 자기계발담론들은 몸의 자기결정권 개념과 얽히면서 외모중심주의를 내면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 3) 청소년기 자기계발의 보상으로서의 성형

성형은 질풍노도의 시기 자녀에게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응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며, 동시에 자녀가 학업이라는 자기계발을 돕는 보조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과거의 권력 장치들이 처벌, 억압, 폭력 등에 의존했던 것에 반해 자본은 보상이라는 동기유발과 채찍과 당근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으로 더 높은 가소성, 탄력성, 유연성을 갖는 것이다(비클러 심슨·닛잔 조나단, 2004: 166-7). 신자유주의 시대 경쟁 사회에서 몸은 더 나은 자이를 성취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경영해야 할 자원으로 변모했다.

“화실에 다니는 언니들은 워낙 좀 있는 집 딸들이고 집에서도 언니들이 해달라고 하면 크게 조르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분위기라서 방학마다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을 하고 오는 언니들이 꼭 한 두 명씩은 있었어요. 그런 언니들과 같이 다니면서 너도 콧대 수술만 하면 예뻐질 것 같다고 자꾸 주변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콧대 수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치를 좀 보다가 엄마한테는 한번 말해봤는데 대학가면 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시안)

이시안은 화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빈번한 또래의 성형 실천을 지켜보며 성형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 갖는다. 엄마는 “대학가면 해줄 테니 걱정 말라”며 ‘성형’을 ‘대학합격’을 위한 동기부여의 추동체로 이용한다. 부모나 또래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를 통해 몸 관련 담론과 몸 중심 사고는 확산된다.

“부모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코 성형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 두 번의 입시에서 실패해서 안 그래도 이미 자존감이 낮아졌는데 외모 때문에 공부는 안하고 거울만 보고 앉아있을 딸의 모습을 보게 될 스트레스 보다는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뭐라도 해줘서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라도 회복시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대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코 수술이 다른 쌍꺼풀 수술에 비해서 좀 가격이 센 편인데 성형수술비 걱정은 안했죠. 그리고 사촌언니가 성형을 해서 성공한 성형외과이기 때문에 성형이 잘못된다든지 부작용이 있을 거란 생각은 1도

없었죠.” (이시안)

이시안의 부모는 요 시기 부모들이 그렇듯 외모 때문에 공부는 안 하고 거울만 보는 딸에게 “뭐라도 해줘서” 자존감을 회복 시켜주려 노력한다. 성형은 두 번의 입시 실패로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수단이자, 공부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가 가진 다양한 다른 자원과 능력을 개발할 가능성 보다 외모가 유일한 자원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확산하는데 영향을 주는 매개자가 된다.

“제 얼굴이 콧대가 낮고 콧구멍이 넓어서 제가 사각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다니는데 안경테에 코 받침이 없으면 콧대가 없어서 더 내려앉아 보여서 정말 딱 되지 코가 되거든요. 유학 가기 전에 코 수술이나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왕따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좀 많이 달라지고 성격도 소심해 진걸 엄마는 아니까 제가 뭘 해달라고 하면 별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는 편이세요.” (김은서)

김은서는 중학교부터 이어진 왕따 경험으로 무기력증에 빠진 후 고등학교를 자퇴한다. 유학 준비를 하면서 성형외과가 밀집한 강남역 근처 학원을 다니다 성형 수술 직후 붓대를 감고 돌아다니는 수많은 여성들을 목격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성형을 결심한다. 오랜 기간 왕따를 당하며 힘들었을 딸이 유학 생활에서 만큼은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엄마는 딸의 성형을 별 말없이 들어준다. 이처럼, 성형은 질풍노도의 시기 자녀에게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응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녀가 학업이라는 자기개발을 하도록 유인책으로서, 지지와 응원의 담지체로서 기능한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훈육에 성형을 이용하며, 외모에 따르는 상이한 보상과 제재를 당연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수용한다.

### 3. 소셜 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자기 전시 문화

여고생들에게 ‘인증샷’은 단순히 유희를 넘어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쉽게 노출되어 중요한 삶의 궤적이었던 졸업앨범이 여고생 성형 수술의 단초를 제공했다면,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재현된 이미지는 여고생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의 이미지로 재현된 본인의 정체성은 오프라인에서의 정체성과 경합하면서 현실을 압도하는 과정 속에 외모에 대한 갈등을 부각시키는 판옵티콘이 된다.<sup>17)</sup> 여성들은 SNS상의 성형 커뮤니티를 통해 시각화 되고 전시된 몸에 대한 소통을 하며 지식·정보 공유의 형태로 미용성형에 관해 학습하며 성형은 자연스럽게 탈 신비화된다. 이렇듯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여고생들의 인정투쟁은 성형 실천의 기폭제가 된다.

“중학교가 남녀공학이었어요. 남학생중 한명이 하루는 초등학교 졸업앨범을 가지고 와서는 지들끼리 앉아서 깔깔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대부분이 같은 중학교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한반에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었죠. 학교에서 제일 예뻐던 애들 사진을 보면서 오오오오 이러다가 정말 똥똥하고 못생긴 여자애들이나 표정이 웃긴 사진을 보면서 막 별명들을 짓고 있더라고요. 하필 제 졸업사진을 찍기 전날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자서 통통 붓기도 했었고 원래 제가 웃을 때 눈이 일자로 보여서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어떤 애가 보고 ‘야, 눈떠!’ 하더니 지들끼리 빵터지더라고요. 정말 짜증이 났죠. 그날 이후 쌍꺼풀 테이프를 안 붙이면 아예 집박을 나가질 않았어요. (중략)

고2 겨울방학으로 수술 기간을 잡은 건 고2 기말고사가 11월말 12월 초에 끝나는데 엄마가 성형수술은 여름보다 겨울에 해야 상처가 덧나지 않고 붓기도 빨리 가라앉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3때 졸업사진이 앞으로 제 인생에 평생 남게 될 텐데 초등학교 졸업처럼 제 흑역사를 남길 수 없잖아요.” (유지나)

“참엔 얼굴에 대해 만족했는데 두 번째 앞트임 망하곤 삶의 만족도는 모르겠어

17) 우리 사회는 어느덧 ‘판옵티콘’(Panopticon)을 닮아가고 있다. 판옵티콘은 중앙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원 둘레를 따라 죄수들의 방이 있는 원형 감옥을 말한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 모든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죄수들은 감시탑이 보이지 않아 스스로 행동과 말을 조심한다. 1975년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네트워크와 DB(데이터베이스)로 개인의 일상을 통제하는 현대 사회의 감시·통제체계를 판옵티콘에 비유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개인들의 일상이 디지털 서버에 저장되는 사물인터넷 시대. 우리는 이미 판옵티콘처럼 누군가에 의해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

“디지털 판옵티콘에 갇힌 사회”. 2017-09-27. 머니투데이.

요. 첫 수술은 몰라도 재수술은 기능적 문제 아니면 속고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오히려 첫 수술 때 만족도는 더 높았어요. 무에서 유는 다르거든요. 결국 제가 한 선택이잖아요. 일단은 졸업앨범이 제일 문제니까. 뭐 그때 가서 풀메하면 사진은 잘 나오겠죠. 사진 찍는 아저씨한테 보장해달라고 할 거예요. (웃음)” (윤지우)

유지나는 초등학교 졸업앨범으로 인해 또래로 부터 외모로 놀림을 받은 기억을 떠올리며 고등학교 졸업앨범에서 ‘흑역사’를 남길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성형을 결심 한다. 두 번의 성형을 경험한 윤지우 역시 졸업 앨범을 ‘보장’해야 할 ‘제일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에게 졸업앨범 속 사진으로 재현된 이미지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물을 넘어 한번 남겨지면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삶의 궤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본인의 정체성이 된다.

“근데 여자애들은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인스타, 페이스북 북에 올리려면 학교에서 화장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점심시간에 사진 찍어 올려야 하니깐가 앞머리가 생명인데 볼륨이 살아야 하니깐 고데기를 가지고 다니고 아침에 하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 수업시간에도 구루프나 헤어롤 말고 매점 가기 전에 미리 세팅을 다 해놓는 거죠. 고데기는 잘 풀리니까 중간 중간 물을 말아 줘야 해요.” (이시안)

“늦잠 자느라 아침에 쌍액을 못 바르고 나올 때는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버스 올 동안 쌍액을 바르기도 해요. 제가 잊지 않고 책가방에 챙기는 게 화장품파우치인데 또 어느 날은 깜박하고 파우치를 못 챙기고 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저희 학교 앞은 짜증나게 로드 샵이나 올리브 영 이런 데가 없어요, 편의점이란 맥도날드 밖에 없어서 점심시간에 담임한테 외출증 끊어달라고 말하고 좀 멀어도 올리브영이나 아리따움으로 가서 쌍액 바르고 거기서 살짝 화장까지 하고 올 때도 있어요. 뭐 거기는 샘플 화장품 눈치 안보고 다 바르고 해볼 수 있는 곳이라 편해요.” (유지나)

“어릴 적부터 코끝이 둥근 게 싫어서 메이크업을 할 때 마다 뾰족하고 오뎅한 콧날을 만들기 위해 음영처리 같은 건 밤마다 유튜브에서 메이크업 잘하는 몇몇 유튜버 구독하면서 동영상보면서 메이크업 기술을 익혀서 정말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게 했죠. (중략) 집에서 제가 해봤던 걸로 진짜 좀 효과가 있었던 건 밤마다 빨래집게를 2년 동안 꾸준히 잡고 있었는데 코볼이 좀 좋아지고 살짝 콧대가 높

아지는 것 같다고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이시안)

연구 참여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들의 일상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며 재현된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정체성으로 위치시키며 신체감시와 통제를 일상화 한다. 눈을 두 배로 만들어 주는 ‘착시 현상’ 화장법의 연마에서부터 ‘생명’같은 앞머리 볼륨을 위해 ‘구루프’를 말고 ‘빨래집게’로 꾸준히 코를 집고 점심 식사를 포기하더라도 외출증을 끊어 먼 길을 달려가 ‘쌍액’을 바르는 등의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한다. 유튜브를 보며 뷰티전문가로부터 컴플렉스 극복을 위한 보정 화장기술을 배우지만, 온라인상의 재현된 자신의 이미지와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현실적 외모는 한동안 갈등과 충돌을 반복하며 몸 관리와 변형을 위한 성형 수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코 성형 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쁘다고 하면서 어떤 남자애한테 헌팅도 당했어요. (중략) 확실히 코를 높여놓으니까 앞트임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얼굴의 중심이 높아진 거니까 시원시원해 진 느낌이고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인스타도 더 자주 올리게 되었어요. ‘좋아요’가 막 놀리면 인기투표 느낌이라 기분이 좋아져요.” (이시안)

“처음에 쌍수 실밥 풀고 붓기 짹짹 빠지고 화장하고 친구들이랑 흥대, 강남 놀러 다니는데 다들 예뻐졌다고 하고, 기분 개꿀이에요. 셀카를 찍으면 진짜 사진이 또렷하고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전 코도 할 거예요. 제 코가 복 코인데 복 코는 어떻게 수술을 하든지 티는 난데요. 근데 요즘 남자애들도 못생긴 애들보다는 티 나는 성괴라도 예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좋아해요.” (신시아)

“코 때문에 사람들이 제 얼굴 몇 초만 봐도 혹시 내 코만 보나 하는 뭔가 그런 마음에 위축되고 막 그랬는데 고민하던 부분이 없어져서 그런가? 공부 하는데 집중력이 진짜 좋아졌어요. 공부에 재미도 좀 붙고요. 셀카를 여러 각도에서 자주 찍고 싶고, 프로필 사진도 자주 바꿔서 올리면 여신 소리도 자주 듣는데 진짜 좋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은서)

성형 후 SNS 상에 재현된 사진을 통해 부여된 주변의 인정과 평가로 여고생들은 자아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시안은 코 성형 후 SNS의 좋아요 수가 증가할수록 ‘인기

투표'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 같아 좋다고 말한다. 신시아는 주변으로 부터 외모에 대해 받는 인정을 '개꿀'로 표현하며 '성취가 되더라도 여자는 예쁘기만 하면 된다'는 또래 남학생들의 가부장적 남성우월주의 사고방식을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한다. 김은서는 셀카와 프로필 사진을 통한 자기 전시에 몰두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형 후 전시된 사진에서 '시원시원한', '또렷함'을 느낀다. 신자유시대의 원활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시각화하고 전시하려면 몸에 대한 투자와 관리는 필수라고 말한다.

“쌍수 후 한 달이 지나고 속눈썹 펴고 아이라인 문신을 했는데 눈이 선명하면서 좀 선해 보이는 눈을 바랬는데 제가 딱 바란 만큼 나왔어요. 화장하고 사진 찍으면 스모키 한 것처럼 보여요. 눈 하나만 커져도 진짜 이미지가 또 달라져 보여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 됐다며 예뻐졌다고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신감도 생기구요. 수술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시우)

“이런 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인가 봐요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어딘가 예뻐졌다는 소리 엄청 들어요. 결과는 대 만족. 첩옴 너무 느끼해서 나조차 침을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은 쏘 네추럴. 이 정도면 그냥 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내 눈이 쌍수한 눈인지 원래 이런 눈인지 절대 분간 못할 걸요. 몇 달 만에 비교해본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바뀔 줄은... 이미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답답함이 사라졌다고 할까? 써클렌즈 같은 거 안 껴도 눈동자가 커 보이는 게 신기방기해요. 이제 내 얼굴에 익숙해져서 옛날 얼굴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수술 후 자존감도 찾게 돼서 행복해요. 화장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하루라도 일찍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쌍수 후 화장하고 셀카 찍으면 각도에 따라 정말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포토샵 잘 안 해요.” (유지나)

“성형 후 거울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진짜 하루에 거울 백번이상은 보는 거 같아요. 셀카 찍는 것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화장해서 인스타에 자주 올리고 하다가 팔로우도 막 늘고 '인스타 여신'이 됐어요. 연예인을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화장하고 옷 막 꾸미고 입고 한 게 좀 유명해지면서 한 화장품 회사에서 신제품 출시할 때 공짜로 화장품 주고 자기네 화장품 후기 올려달라고 하는 화장품 테스터로 저를 선정한 거예요. 블로그에 후기 올렸는데 조회 수

장난 아니고 막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화장품 회사에서도 연락 와서 신제품 출시하는 뭐 그런 파티 같은데 초대되고” (이새롬)

홍시우는 한 번의 성형으로 다른 사람이 됐으며 이새롬은 하루아침에 ‘인스타 여신’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기준에 맞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면 타인에게 인정받고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된다 말한다. 유지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로 달라진 외모에 따른 사회적 인정이 주는 기쁨을 표현했다. 외모 차별주의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몸을 ‘우수한, 가치 있는 몸’으로 정의함으로써 ‘구별 짓기’를 행사한다(함인희, 2006). 여고생들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쓴다. 사회가 요구하는 미를 구현한 몸은 자기 전시를 통해 신분상승을 한 듯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외모 차별주의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노력이나 투자의 결과 몸 자본은 후천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는 인식은 여고생들에게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 4. 성형 산업

한국의 거대 성형산업은 청소년 고객을 핵심 목표 대상으로 정하여 다양한 마케팅을 펼친다. “열공 했으니 예뻐져라”, “자꾸 눈이 가는 눈”, “눈·코·입이 아무리 예뻐도 얼굴이 사각형이면 무슨 소용?”, “호박 같던 얼굴이 사과 같은 얼굴로 변했다!”, “캠퍼스 커플 꿈꾼다면? 절대 놓치지 말자”, “기슴 성형외과 유명한 곳 수험생 할인 중!”, “학생 프로모션 이벤트”라는 광고 문구처럼,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형광고는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수험생 딸은 방학성형, 엄마의 깊은 이마/눈가 주름은 ‘안티 에이징 이마 거상술’로 “수험생 부모사랑 특별대우 서비스”, “다자녀 엄마 복부 성형 이벤트(2명 이상)” 일명 ‘수능 특수’를 노리는 성형외과들은 앞 다투어 수험생의 혜택이 가족에게 까지 적용되는 공격적 마케팅을 감행한다.

의료법상 신문, 잡지, 전광판, 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난 성형외과 홈페이지

이지로 연결된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성형외과 마케팅에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 중에는 SNS나 성형 블로그에서 수술 후 과다하게 보정한 사진과 경험담을 보고 성형에 관심을 갖다가 성형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더욱이 가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청소년들을 심리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청소년들은 집도의의 실력보다는 저렴한 성형비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할인율이 높은 성형외과를 찾아 시술받을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성형 정보나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안전에 대한 설명보다 광고 속 자극적인 문구, 이미지, 모델의 후기 등에 현혹돼 자신의 이미지나 객관적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특정 시술만을 고집하게 된다. 수술 뒤 부작용은 집도의가 아닌 수술을 받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형수술은 그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 성장이 멈추지 않은 10대들에게 부모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성형 수술을 하는 불법적인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형이 늘어나면서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사망사건이 연일 보도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뒤늦게 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신체 부위에 따라 미용 성형 수술에 제한을 두는 의료법 개정안이 2013년에 발의되었지만,<sup>18)</sup> 대한 의사협회가 미성년자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폐기되는 논란이 있었다. 청소년들에게는 성장이 완료된 후에 성형 수술 시행을 권장하는 외국과는 다른 차원의 논란이다.<sup>19)</sup>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수술인데 이왕 내 얼굴에 하는 거 신중하게 골라야지

18) “법으로 ‘청소년 성형수술 금지’ 명문화 추세: 호주·대만 이어 독일 추진, 한국도 금년 1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법안 발의”. 2013-12-04. 데일리메디.

19) 독일의 경우 2008년 4월 23일 독일의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 의원 30명은 청소년 대상 성형 수술 금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 13일 18세 이하 소녀를 대상으로 가슴 성형 수술 또는 다른 성형 수술 금지 법안을 입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호주의 경우 NSW주는 성형수술을 하려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3개월간 숙려기간, 의무적인 상담, 2차 의견 청취 등 3단계 허용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16세 이하 청소년의 보디 피어싱 금지 내용을 담은 법률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타이완 정부도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를 이유로 들며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형 수술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만 타이완 달러(한화 7백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화상 흉터 제거 등 치료를 위한 수술은 나이와 관계 없이 허용된다.

“만 18세 이하 미용성형 금지한 타이완, 한국은 과연?”. 2013-09-13. 매경닷컴.

하는 마음에 피곤할 정도로 여기저기 병원을 알아봤어요. 요즘 뉴스에서 보면 여러 성형외과에서 유명 의사, 대타 의사라 해서 수술을 대신 해주는 의사들이 많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어요. 근데 유명한 병원일수록 호불호가 갈리고 성공하면 진짜 예쁜 반면에 뭐 진짜 망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새롬)

“다 같을 순 없겠지만 너무 고민되면 충분히 생각 많이 하고 상담 받고 자기한테 꼭 맞는 병원 잘 골라서 수술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유빈)

연구 참여자들은 일생에 처음 하는 수술이라 ‘피곤할 정도로’, ‘신중하게’, ‘충분히’ 상담을 받고 병원을 고른다고 이야기한다. 이새롬은 대타 수술<sup>20)</sup>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형외과 ‘유명 의사’에 대해 우려와 걱정하면서 신중하게 성형외과를 골랐다고 말한다. 청소년 성형 수술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사회적 안전망이 현실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한다. 성형 수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개인의 몫이자 선택으로 남는다.

“고민하다가 인스타에 저랑 비슷했던 코를 가진 분을 통해서 성형외과를 알게 되었어요. 그 병원이 다른데 비해 홍보도 유명세도 없길래 상담 신청해놓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장님께서 엄마한테 직접 전화해 주셔서 먼저 상담해주시고 전화랑 카톡을 반복하면서 확인하면서 불안해하는 저를 위해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너무 사소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소한 거까지 직접 다 대답해 주시면서 제 마음을 차분히 달래주신 거 같아요.” (이새롬)

“쌍꺼풀은 수술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병원은 좀 무섭잖아요.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첫 상담 갔는데 압구정에 되게 유명한 성형외과예요. 실장님 그냥 입을 엄청 잘 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실장님도 거의 다 성형한 사람들이라 자기도 여기 누구 원장한테 성형 받았는데 엄청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더 신뢰하게 해요. 실장이랑 얘기 하고 나서 견적내고 그 다음에 원장이랑 상담 받는데 원장은 비싸고 수술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별로 친절하진 않았어요. 근데 막 실장이 지금 예약 걸고 나가면 더 싸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예약금 넣으라고 엄청 강요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냥 다 사기꾼 느낌, 근데 더 싸다고 하니까 예

20) 법원 “‘유명수술’ 유명 성형외과 원장, 환자에 8천만원 배상”. 2017-08-04. 연합뉴스.

약금 내고 와버렸어요.” (신시아)

“압구정동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성형외과를 갔는데 우선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예쁜 언니들로부터 환영의 인사를 받고 부담스럽지 않은 친절을 느꼈습니다. 엄마랑 우물쭈물하는데 직원 언니가 다가와 주셔서 편안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기를 하고 상담을 받았어요. (중략) 한국 성형외과가 정말 좋은 게 수술당일에 병원에서 리무진 택시를 보내줘서 수술 전 수술 후 픽업서비스를 해 주더라고요. 한국 너무 좋아요.” (송혜인)

“성형 앱을 통해 쌍꺼풀 재건성형전문 병원을 검색하고 후기와 평점이 좋은 병원을 찾아 가서 상담을 받은 후 재수술을 했어요.” (이다희)

이새봄은 SNS를 통해 성형 정보를 얻는 병원의 홍보가 다른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이유로 고민한다. 그러나 상담 실장의 지속적인 전화와 카톡으로 ‘불안’은 곧 해소된다. 신시아는 유명 성형외과의 체계적 상담 시스템을 잘 돌아가는 ‘성형 공장’, 성형외과 상담 실장들이 자신들의 성형 경험을 토대로 성형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입을 잘 튄다’, 내놓고 예약금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사기꾼’같다 느낀다. 그러나 예약금을 걸면 성형 비용이 더 저렴해 진다는 말에 결국 예약금을 내고 온다. 외국에서 생활한 송혜인은 ‘압구정동에서 제일 유명한’ ‘리무진 택시 픽업서비스’가 병원을 결정할 때 가장 맘에 들었다고 말한다. 성형외과들은 파워 블로거영입, 스마트폰 채팅앱, 성형앱, SNS를 이용한 성형외과 모델 모집,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을 이용하여 자본주의 사회가 유포하는 경쟁력 있는 몸에 대한 획일화된 의료기술 시장의 논리를 주입하면서 광고에 취약한 청소년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강남역, 신사역, 압구정역 유명한 코 수술 성형외과는 다 검색해서 알아봤죠. 카페에 가입해서 후기 다 읽고 댓글에 질문하면 답 오거나 쪽지로 상세히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카페 활동 하면서 알게 된 성형으로 인생 다시 태어난 사람들 사진을 보면 진짜 너무 예쁘고 인형이예요 인형. 제가 먼저 쪽지 보내고 하니까 또 친절하게 답변 해주셔서 그분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중략) 그분 소개로 청담동에서 코 수술로 유명하시다는 병원을 소개받아서 예약하고 엄마랑 같이 갔어요. 성형외과 원장님이 워낙 임상 경험이 풍부하시고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일명 ‘금손 닥터’로 꽤 유명하신 분이이라 예약 날짜 잡고 수술 날짜 잡는 것도 꽤 오래



걸렸어요.” (김은서)

“신사역에서 오랫동안 한 성형외과에다 원장님이 서울대 출신이라 실력도 뛰어나다고 성형 카페에도 후기가 자자해서 갔는데, 예쁜 실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과하게 수술 증용을 안 해서 좋았어요.” (유지나)

김은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성형외과 밀집 지역인 ‘강남역’ ‘신사역’ ‘압구정역’ ‘청담동’을 중심으로 성형외과를 검색한 후 성형후기를 통해 정보 공유를 한 여성의 소개로 ‘금손 닥터’에게 간다. 유지나는 ‘신사역’에서 오랫동안 성형외과를 운영한 ‘서울대’ 출신의 원장님을 선택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자기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꼼꼼하고 신중하게 병원과 의사를 선택한 알뜰한 소비자라 말한다. 여고생들을 신자유주의 시대 의료 기술 시장의 이데올로기를 무비관적으로 수용하면서 미용성형을 자기계발을 위한 선택이자 소비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엄마는 인도네시아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시느라 진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엄마도 한국에 와서 저랑 같이 성형외과 상담 받다가 피부 주름관리 리프팅 시술과 자가 지방 주입을 이용한 눈 밑 꺼짐 및 양볼 처짐 수술을 했어요.” (송혜인)

송혜인처럼 연구 참여자 중에는 엄마와 함께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을 받다가 부모와 동반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함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 것은 한국 여고생 성형의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 외모가 스펙으로 인식되고 자기관리 능력의 척도로 인식 되는 한국사회의 몸만들기 열풍은 세대와 성별을 막론하고 확산되는 추세다.<sup>21)</sup>

“어차피 할 쌍수인데 구지 시간 끌 이유도 없고 그래서 상담 받았는데 저는 눈꼬리가 막혀있고 밑쪽은 올라와 있고 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쌍꺼풀 수술인 비

21)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에 하는 ‘수능성형’,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을 위해 하는 ‘취업성형’, 40-50대 이상 중년 여성들의 동안 열풍을 반영한 ‘줌마성형’, 60-70대 노인들이 하는 ‘실버성형’까지 이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형을 대하는 자세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성형시대 신조어 성괴, 의란성·후천성 쌍둥이, 의느님”. 2013-07-19. 헤럴드경제.

절개, 매몰법, 뒤 밑 트임을 먼저 했어요.” (윤지우)

“저처럼 입시무용을 시작한 친구들 중에 쌍수 안하고 생김 대로 사는 애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요즘엔 쌍수는 기본이죠. 비절개, 자연유착, 앞트임, 위 트임 뒤트임, 눈매교정을 한 번에 섞어서 하는 게 많죠.” (조유빈)

연구 참여자들은 수술 부위, 수술법, 의사, 가격 및 서비스 등을 자기주도적 방법을 통해 신중하게 선택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거대 성형산업의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완전한 안전장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한국의 미용 성형 시장은 전문의뿐만 아니라 비전문의까지 뛰어들면서 각종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의사와 환자 사이의 위계화 된 관계로 인해 그 위험성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고 있다. 성형 산업과 언론은 미용성형의 효과만을 과장하게 선전하고, 미용성형의 선택을 소비자 개인의 의지인 것으로 담론화 함으로써 그 선택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마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김양선, 2014). 여고생들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성형트렌드로 둔갑시켜 무분별한 성형을 유도하는 의료산업과 대중매체의 작동원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 III. 여고생의 성형 경험

#### 1. 수술 결정까지

##### 1) 부족한 외모: “성형해야 하는 얼굴”

연구 참여자들은 성장하면서 가족, 친지와 같이 유의미한 타인들의 기준에 의해 외모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된 지적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성형의 필요성을 느낀다. 성형 수술은 몸에 대한 인식을 이상화함으로써 표준에 맞지 않는 외모를 가진 여성들을 타자화 하고 가부장제 사회, 소비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몸을 동질화함으로써 ‘외모가 곧 권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한다(김양선, 2014).

“어릴 적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전적인 영향으로 엄마와 똑같이 생겨서 키는 작는데 F컵의 큰 가슴, 작은 눈과 낮은 콧대를 그대로 물려받아 외모에 자신이 1도 없었죠. 주변 친구들은 그렇게 못생긴 편은 아니라고 말해주지만 사실 거울 볼 때마다 자기 최면 걸 듯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낮은 코에 무쌍 왜 이리 못 생긴 건지 신경 쓰여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못 생긴 건가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점점 자존감도 낮아지고. 문제는 제가 외모적으로 부족한 곳을 성형으로 고친다 해도 과연 내가 행복할까 오히려 더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떡하지 누가 나보고 성괴라며 손가락질 하면 어떻게 할까 사실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섭고 그랬어요.” (박하늘)

“언니는 태생부터 예뻐요. 언니는 눈만 했는데 원래 속쌍에 얼굴도 작고 계란형에 가름하고 역시 여자는 눈이더라고요, 쌍수하고 눈은 엄청 커지고 코는 콧대 있고 코볼도 좀 있고 피부도 뽀얗고 쌍꺼풀 생기니까 어떤 눈 화장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날 때 석탄 소리 들을 정도로 까맣고 사각턱에 통통하고 광대가 있고 옆넓이가 넓고 옆모습이 윗입술만 툭 튀어나와서 고민이었거든요. (중략) 성형이야기 나오면 사촌들이 수술을 여러 번 해서 성괴되면 어색해 질 거라고 말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

지만 우선 한번 믿어보자 했는데 지금 전 너무 만족해요.” (조유빈)

박하늘은 ‘무쌍’에 ‘낮은 코’로 인해 어릴 적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없어 낮아진 자존감으로 ‘외모에 자신이1도 없었다.’고 말한다. 조유빈은 ‘태생부터 예쁜 언니’와 비교하며 ‘날 때부터 석탄’으로 불린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억울한 스타일’이라 느낀다. 조유빈은 빈번한 성형으로 혹시나 주변으로부터 성괴라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성형을 결심하기 전 반신반의했지만 성형 후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한다. 자기 몸의 변화를 막 깨닫기 시작한 10대 여고생들은 외모로 평가받고 놀림을 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후, 우울증, 스트레스, 대인기피를 경험하기도 한다.

“하루는 인도네시아인 담임선생님이 제 이름 대신에 ‘쌍꺼풀 없이 옆으로 쪽 찢어진 눈을 가진 한국애’라고 부르는데 진짜 그때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학교에 가기도 싫고 우울증도 생기고 대인기피증 같은 증세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중학교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엄마랑 간 데가 성형외과였어요. 고등학교 전학 수속을 밟는 것 보다 전 이게 더 급하고 절실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쌍꺼풀이 없어서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한국에서도 쌍꺼풀 없이 살면서 설움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쌍꺼풀 없는 눈을 새로 전학 간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 (송혜인)

“엄마 아빠 두 분이 쌍꺼풀이 진해서 저도 예쁜 쌍꺼풀이 있거든요, 아빠를 닮아 키도 168정도라서 어릴 적부터 키도 크고 예쁘니 미스코리아에 나가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제 코가 남자 코 같이 크고 살짝 매부리코 같아서 콤플렉스가 심했어요. 두 명의 고모들은 명절이나 가족모임에서 늘 제 외모에 대해 매부리코만 아니면 더 괜찮았을 텐데 라며 코 성형을 부추기셨죠.” (이새름)

인도네시아인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이름 대신 ‘쌍꺼풀 없이 옆으로 쪽 찢어진 눈을 가진 한국애’라 불리며 외모로 놀림과 상처를 받은 송혜인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증세를 경험하며 쌍꺼풀 없이 살던 삶을 ‘죄인처럼 살았다’ 토로한다. 심한 매부리코가 콤플렉스인 이새름에게 고모들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외모 지적과 성형을 부추기는 유의미한 타인이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이렇듯 주변친지나 가족에 의해 지속적인

로 외모 지적과 평가를 경험하며 대인기피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성형을 결심한 경우도 있다.

“하루는 저희 집에 저랑 중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가 놀러왔는데 그 친구는 쌍꺼풀도 진하고 눈도 커다랗고 예쁘거든요. 고모들이 개를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막 칭찬을 하더니 저보고 저 친구 옆에 있으니 네 눈이 더 작고 답답해 보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니 재는 노력도 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예쁜 쌍꺼풀에 눈을 가졌더니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는 생각에 질투와 샘이 나더라고요. (중략) 주변에서 친구들도 쌍수하면 진짜 인기 많을 것 같다는 말도 많이 하구요. 그래서 고 1 겨울방학 때 수술했어요.” (윤지우)

윤지우는 쌍꺼풀이 예쁜 친구의 눈과 작고 답답한 자신의 눈을 비교 당하며 질투와 샘을 느끼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 생각한다. 여고생들은 가족, 친지, 또래와 같이 유의미한 타인에 의해 일상화된 외모 비교와 평가를 경험한 후,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을 위해 성형을 결심하기도 한다.

“저는 어릴 적부터 눈 꼬리가 올라가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나워 보이기도 하고 눈 화장도 신경 써서 해야 하구요, 근데 사람을 많이 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좀 사나워 보이고 졸려 보이는 눈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 기분 좋은데도 나빠 보인다는 말을 들어서 수술 결심했어요. 눈 꼬리를 너무 내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인터넷을 오래 찾아 봤더니 뒤통이를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홍시우)

“제 코가 남자 코같이 매부리코에 코볼도 넓어서 콤플렉스가 심했어요. 큰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라 가족 모임에서 ‘아는 성형외과 의사가 많으니 말만하면 코는 언제든 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할 마음이 그리 많진 않았어요. 고 1 때 친구들과 신림동에 놀러가서 사주 카페에서 갔어요. 제 얼굴을 보면서 ‘제 코가 복 코라 돈복이 들어있는데 매부리코라서 재복이 전부 흘러 나갈 수 있다며 코 성형을 꼭 하라고 하는 거예요.’ 헐. 안 그래도 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말 듣자마자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니까, 안 그래도 전에 큰아빠가 제 코 이야기 하길래 코 성형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좀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중략) 그래서 고 1 겨울방학에 했어요.” (이새름)

평소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긴 해도 성형할 의사는 없었던 두 연구 참여자도, 사나워 보이고 기분 나빠 보이는 인상(홍시우)을 개선하고, 재복이 흘러 나갈 수 있는 코(이새름) 때문에 사주팔자 개선을 목적으로 일명 ‘관상 성형’을 했다. 성형을 통해 관상이 변하면 자신의 운명 또한 바뀌며, 얼굴이 인생을 좌우하고 성공한다는 한국 특유의 비과학적 외모지상주의가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 담론과 얽히면서 몸 자본화와 성형 추동의 요소로 기능한다.

“제 눈이 진짜 작아서 남자애들이 맨날 단추 구멍이라고 놀렸지만 신경1도 안 썼어요. 초등학교 6학년에 속눈썹이 말려 들어가서 눈을 뜰 때마다 눈동자를 찌르는 고통과 함께 이마랑 눈썹 힘을 사용해서 눈을 뜨는데다 눈썹 찢림 때문에 눈에 상처가 나면서 눈이 시려서 계속 찡그리게 되서 안과에 갔더니 헐 왜 이제야 왔냐며 아주 망막에 상처가 심해서 염증도 있고 근데 다행인건 아직 눈동자까진 손상이 없으니 하루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눈꺼풀 형태로 봐서 나 이 들면서 더 나아질 눈이 아니라고 해서 하안검 내반증 수술과 쌍수를 했어요.” (이다희)

이다희는 평소 또래들에게 작은 눈 때문에 ‘단추 구멍’이라는 외모 지적과 놀림을 받았으나 성형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다. 연구 참여자 중 유일하게 자발적 의지에 의한 성형 실천이 아닌 속눈썹이 말려들어가는 눈 찢림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시절 의료 목적으로 ‘안과’를 찾아 쌍꺼풀 수술을 한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하물며 오빠까지 쌍꺼풀이 있는데 짜증나게 저만 쌍꺼풀이 없어요. 저희 아빠가 장남이라 평소에 저희 친할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데, 그때마다 고모들이 놀러오거든요. 고모들도 당연히 쌍꺼풀이 있고요. 고모들이 올 때마다 제 얼굴을 보고 하는 소리가 쯤 진짜 대학가면 쌍꺼풀 수술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윤지우)

“그래서 엄마는 제 무쌍에 낮은 코를 보면서 반드시 눈과 코 수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얼굴이라고 농담처럼 말하셨어요.” (박하늘)

“엄마도 평소에도 저보면서 이제는 생김 대로 살아서는 살아 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늘 말 하면서 제 얼굴에서 쌍꺼풀 수술을 기본으로 해야만 정리가 된다고 말

했거든요.” (유지나)

연구 참여자들은 성장하면서 가족, 친지와 같이 유의미한 타인들의 기준에 의해 외모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된 지적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성형의 필요성을 느낀다. ‘진짜 수술을 해줘야 하는 눈’, ‘반드시 해줘야 하는 눈과 코’, ‘기본으로 쌍꺼풀을 해야만 정리가 되는 눈’과 같이 일상적인 발화들을 통해서 드러난 몸의 기준은 단일하게 적용되며 개조하고 관리해야 할 자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같이 일상적 발화들을 통해 주입된 성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획일화된 몸 담론은 청소년기 다양한 자원과 잠재적 능력 개발의 가능성 및 경쟁력을 무력화시키는 기제가 된다.

## 2) 성형 전 숱한 실천들

연구 참여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형을 결심하는 것은 아니다. 수정과 보완이 일상화된 온라인상에서 재현된 자신의 이미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면서, 오프라인 현실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이쉬운 부위’에 대한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느끼며 ‘내가 원하는 부위’의 성형 수술을 선택한다.

“저는 화장을 한번 하면 대충 하는 건 없어요. 하면 정말 다해요. 쌍액 바르고 콧대 세우기까지 풀메로. 손이 좀 느린 편인데 화장은 붓 터치를 얼마나 자주하나에 따라 정말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전 메이크업을 하는 데에만 한 시간 이상 걸려요. 정성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화실에 가는 날은 전날 저녁부터 화장 잘 먹는 피부를 만들어 놓죠. 자기 전에 크림 바르고 팩하고 전 다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 5교시부터 기초화장을 미리 미리 좀 해 놓죠. 화장이 잘 받는 얼굴로 준비를 해 놓은 후 6교시부터 쉬는 시간부터 틈틈이 하는데 뭐 수업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미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면 붓 터치가 남달라요. 풀메를 하면서 눈을 두 배로 만드는 원천 기술을 터득했어요. 콧대는 음영처리가 중요한데 이게 착시 현상이 대박이거든요.” (박하늘)

또래 남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한 박하늘은 화장하는데 ‘정성’을 들이고 투자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중학교 시절부터 화장을 시작한 여고생들에게 비비나 틴트

는 더 이상 화장이 아니다. ‘착시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전문화된 화장을 일상화하는 여고생들에겐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쌍꺼풀액을 사용하고, 콧대를 높여주는 음영처리 기술을 터득하는 것은 결점 없이 완벽한 메이크업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이렇듯, 성형 전 술한 실천들로 자신의 얼굴을 인위적으로 재구성해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형의 필요성은 절실히 부각된다.

“근데 전 어릴 적부터 화장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더 잘하고 노련미가 생겼어요. 경험이 중요해요. 지금도 브러시, 세도우, 거울이 제 애정템이에요. 집에서 제가 해봤던 걸로 진짜 좀 효과가 있었던 건 밤마다 빨래집게를 2년 동안 꾸준히 잡고 있었는데 코볼이 좀 좁아지고 살짝 콧대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친구가 말 하더라고요.” (이시안)

“중학교 때부터 쌍액, 쌍테 달고 살았죠. 1년 정도 하니 쌍꺼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긴 쌍꺼풀은 얼굴이 조금 부었다 싶으면 없어지고 라인도 자주 바뀌고 풀리기 일쑤.. 그래도 없어지면 쌍액으로 버티며 지내왔는데.” (윤지우)

“그날 이후 쌍꺼풀 테이프를 안 붙이면 아예 집밖을 나가질 않았어요. 아침에 학교 올 때는 사실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도 힘든데 화장은 꿈도 못 꾸죠. 쌍얼로 갈수 밖에 없는 시간인데도 정말 쌍액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자마자 바르고 가요. 그만큼 쌍 액을 바르면 정말 눈이 1.5배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중략) 늦잠 자느라 아침에 쌍액을 못 바르고 나올 때는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올 동안 쌍액을 바르기도 해요.” (유지나)

연구 참여자들은 쌍액, 쌍테, 집게 등 일상화된 술한 실천들을 통해 자신들의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려 노력한다. 눈 화장의 극대화를 위해 쌍액, 쌍테를 사용하고, 좀 더 높은 콧대를 위해 빨래집게를 잡는 등 다양한 실천을 한다. 이들은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부터 화장을 시작했으며 다년간 경험한 화장을 통해 완성된 (사회적인 미의 기준) 결점 없이 완벽한 미인의 모습을 모방한다. 자신의 작은 눈, 찢어진 눈, 낮은 코, 넓은 코볼에 전문적인 관리와 대안이 필요하다 느끼면서 성형 수술은 자아연출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 3) 자연스러운 변화: “친구들 다 하나까”

여고생들의 성형 수술 결정은 타인의 성형을 의미화 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들 다 하나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구체적인 성형 실천으로 이어졌다 말한다. 외모에 따라 상이한 보상과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고생들에게 성형은 자기관리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있는 그대로의 몸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유순하고 획일화된 몸으로 길들여지면서 몸에 대한 자기 규율, 자기 감시가 확산되고 몸의 식민화 현상은 심화된다(김양선, 2014).

“언니는 태생부터 예뻐요. 언니는 눈만 했는데 원래 속쌍에 얼굴도 작고 계란형에 가름하고 역시 여자는 눈이더라고요, 쌍수하고 눈은 엄청 커지고 코는 콧대 있고 코볼도 좀 있고 피부도 뽀얗고 쌍꺼풀 생기니까 어떤 눈 화장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유빈)

“저희 집이 대가족이라 친척이 진짜 많고 저희 집이 제일 넓어서 명절에는 거의 대부분 저희 집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올해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간 사촌언니가 이번 추석에 코 수술을 하고 왔는데 헐 진짜 다시 태어난 줄... (웃음)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 언니가 그럴 언니가 아니거든요. 진짜. 대학에 붙으면 코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셨던 엄마도 너무 놀란 거죠. 바로 사촌언니가 수술한 성형외과가 어딘지 물어봤죠. 엄마도 한번 결정하시면 성격이 불이시거든요. 강남역에 위치한 성형외과라 집에서도 가깝고 상담 받은 날 바로 예약하고 수술날짜를 잡았어요. 겨울 방학식날로.” (이시안)

연구 참여자들이 성형을 결심하고 의미화 하는 과정 속에 가족, 친지 또래 등 유의미한 타인의 성형 실천과 성공적인 성형 결과는 결정적 요소로 작동한다. 이시안은 코 성형으로 몰라보게 달라진 사촌언니를 보며 ‘다시 태어난 줄 알았다’ 말한다. 주변의 성형 성공 사례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형을 통해 얻게 될 이득이 무엇인지 가장 가시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방식이 된다.

“고 2 여름방학 때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자연 유착이랑 앞트임을 하고 학교에

왔는데 애초부터 붓기고 별로 없고 티도 진짜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결심했죠. 아 저렇게 자연스러운 거면 나도 얼른 해야겠다.” (유지나)

“화장을 하면 예뻐 보이지만 쌍꺼풀이 좀 애매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성형을 하고 와서 너무 예뻐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불안하기도 하고 개볼 때마다 내가 재 성형 전 얼굴보다는 괜찮았었는데... 보니까 붓기도 금방 빠지고 부작용도 없나보네... 나도 할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중략) 고1 때부터 친해진 친구들이랑 쌍수 이야기 진짜 많이 한 거 같아요. 쌍수해서 누가 더 졸업앨범사진에 예쁘게 나오는지가 최고의 관심사였죠. 막상 쌍수 하겠다고 하고 수술 결정하게 며칠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거죠. 친구들이 다 하니까. 쌍수 한다고 더 예뻐지란 보장도 없는데 말이에요.” (신시아)

신시아는 성형 전에는 별로 예쁘지 않았던 주변 또래들이 성형 후 자신보다 더 예뻐지자 불안감을 느꼈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성형을 했다고 말한다. 유지나는 성형 수술 후 붓기와 상처 없이 성형한 티가 나지 않는 또래 친구들을 보며 성형 수술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기우였음을 깨닫는다. 또래들이 성형을 통해 아름다움을 획득한 사례를 지켜보며 성형에 대한 부작용이나 거부감이 자신에게도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성형이 여고생의 몸에 행사되는 방식은 이러한 신념을 통해 드러난다.

“저처럼 입시무용을 시작한 친구들 중에 쌍수 안하고 생긴 대로 사는 애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요즘엔 쌍수는 기본이죠. 비절개, 자연유착, 앞트임, 위트임 뒤트임, 눈매교정을 한 번에 섞어서 하는 게 많죠.” (조유빈)

“예고에선 방학 때 성형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희 반에도 눈하고 코한 애들이 5명 정도 되요.” (박하늘)

“자퇴를 하고 중국어 회화 학원을 강남역으로 다녔는데 강남역엔 진짜 예쁜 여자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하루에도 몇 명씩 꼭 코 수술하고 양악 수술한 여자들이 붕대 감은채로 돌아다니는 것도 진짜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 얼굴이 콧대가 낮고 콧구멍이 넓어서 제가 사각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다니는데 안경테에 코 받침이 없으면 콧대가 없어서 더 내려앉아 보여서 정말 딱 돼지 코가 되거든요.

유학 가기 전에 코 수술이나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김은서)

김은서는 강남 역 근처 학원을 다니며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성형 수술 직후 아무렇지도 않게 붕대를 감은 채 활보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들 다 하나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구체적인 성형 실천으로 이어졌다 말한다. 여고생들은 몸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장소가 되는 시대에 끊임없는 보수와 개선, 자기 배려의 맥락에서 성형을 실천하는 여성들을 적극적이며 자아를 계발하는 주체로 평가한다.

## 2. 수술과 회복 과정

이 장에서는 여고생들의 수술 직후 변화하는 몸의 경험, 성형 수술 후 몸의 고통과 그 해석에 집중하고자한다. 성형 부위와 성형 수술 방법, 그리고 성형 수술이라는 행위를 둘러싼 3명의 경험을 재구성해보려 한다.

### 1) 아픔과 고통

가수가 꿈인 홍시우는 스스로 번 돈으로 보컬 레슨을 받기 위해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인근에 위치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부모님 몰래 하루에 4시간씩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한 달을 못 버티고 관두는 힘든 일이지만, 6개월 동안 성실히 일하며 점장의 눈에 들어 시급도 오르고 돈도 제법 모았다. 눈꼬리가 올라간 게 콤플렉스이긴 하지만 성형 수술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는 아니었다. 그러나 손님들로부터 인상이 사납다, 기분 나빠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쌍꺼풀 수술을 결심한다. 선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기 위해 자연유착, 눈매 교정, 앞트임, 밑 트임, 눈 꼬리를 내려주는 뒤트임을 동시에 받았다.

“제 피부가 살성이 약하고 예민해서 마취 할 때도 아프고 중간에 깨워서 할 때도 아프고 눈매 교정 할 때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진짜 너무 아팠어요, 왜 이렇게

아픈지. 회복실에서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집에 오면서 중간에 약국 들렀는데 너무 아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세히 살펴보지도 못하고 바로 골아 떨어져서 잤어요.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꿀잠자고 일어나니 내려간 눈 꼬리가 너무 선해 보여 만족스러웠어요, 눈길에도 길어진 것 같고, 수술 후 눈은 조금 빠근한 감이 있고, 눈물인지 눈곱인지 눈이 흐물흐물 했어요. 심할 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줄 알았어요. 약국에서 처방 받은 안약을 넣고 2,3일 만에 괜찮아졌어요. 눈이 흐물흐물 했던 게 뒤트임 후기에서 많이 보이는 결막부종이었다는 걸 괜찮아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붓기 빨리 빠지는 비법 공유해서 호박죽 매일 먹고 냉찜질 달고 살았어요. 쌍수 하고 나서 며칠 동안 물 튀기면 안 되서 머리 못 감잖아요. 근데 미니 생리대 이마에 붙이고 하니까 하나도 안 튀기고 나름 꿀팁이죠. 진짜 연예인 된 사람들 다들 너무 존경합니다.”

눈매 교정을 하는 데 너무 아프다. 순간 욕이 나올 정도로 너무 아파서 울었다. 수술 바로 다음 날도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다행히도 제일 걱정되었던 사나웠던 눈 꼬리가 내려가서 선해 보이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 역시 뒤트임과 밀트임을 같이 하길 잘했다. 2,3일 동안 눈은 아프고 빠근하기 까지 하다. 눈물인지 눈곱인지 뭔가 감각은 없는데 흐물흐물 거리는 것이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줄 알았다. 수술 후 처방된 안약을 매일같이 넣었더니 조금 나아졌다. 세상에...수술 후기를 보니 그렇게 아팠던 게 뒤트임하면 생기는 결막 부종이었을 줄이야. 매일 매일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수술 후 지금까지 상처 부위의 붓기를 빼기 위해 끼니마다 호박죽만 먹었더니 아! 빨리 밥을 먹고 싶다. 게다가 무슨 할일이 이렇게도 많은지...아침저녁으로 매일 같이 냉찜질도 해줘야만 한다. 수술 부위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 물 한 방울 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며칠째 머리도 못 감았다. 가렵고 기름진 머리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머리를 감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다. 상처 부위를 보호하기만 하면 되니까... 가만있자, 이마에 생리대를 붙이고 머리를 감아볼까? 물 한 방울 안 튀고 머리감기 성공! 아! 내가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다니... 생각해보니, 쌍꺼풀 수술 하나 하는 데에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데 한두 군데가 아닌 전신을 다 성형한 연예인들은 대체 어떻게 이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살았을까? 새삼 놀랍고 존경심이 생긴다.

초등학교 시절 미술 영재로 두각을 나타내던 이시안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둥근 코끝이 싫어 음영 메이크업으로 보정을 하고, 밤마다 집게로 코를 집어주며 오뎅한 콧날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천을 해왔다. 자신이 원하던 예중과 예고 입시에 연속 실패하고 인문계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성적은 최하위로 떨어진다. 두 번의 입시에 실패한 딸이 공부는 안하고 거울만 보고 있자 성형 수술이라도 해주면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딸과 함께 성형외과를 찾는다.

“성형 하자마자 진짜 너무 아팠어요. 붓기 가라앉는데 좋다고 호박죽에 상처치료에 좋다는 매생이죽에 실밥 풀기 전에는 입 벌릴 때도 아파서 진짜 조그만 티스푼으로 죽만 떠먹고 있는 것도 짜증났죠. 근데 엄마한테는 말도 못했죠. 다시는 내가 이런 성형을 하나 보라 하고 후회 진짜... 정말 고통스러웠던 건 한동안 제 코 안에서 본드가 썩는 듯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라색 멍 자국에 붓기에 진짜 하루 종일 거울만 보고 집에만 있었어요. 게다가 자신이 원했던 코모양이 아니고 끝이 너무 뾰족해서 진짜 마귀할멈 같고 왜 있죠. 그 서인영이 한창 코 수술 망했을 때. 옆에서 보면 딱 그 코였어요.”

요즘 코 수술은 하도 간단해서 수술도 아니라고 그러기에 성형 수술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아파도 너무 아프다. 코 수술을 했는데 입 벌리는 게 힘들고 아플 줄이야. 죽 먹을 때 입도 못 벌릴 정도로 너무 아프다. 배는 고프고 입은 아프고, 조그만 티스푼 들어갈 정도만 입을 벌려도 너무 아프다. 이런 상황에 울컥 짜증이 난다. 엄마한테는 이 짜증나고 힘든 고통을 내색조차 할 수 없다. 내가 이걸 왜 했나 자괴감과 후회가 몰려온다. 게다가 저 멀리 코 안에서 슬금슬금 몰려오는 ‘본드 썩는 쓰레기 냄새’까지 이걸 고통을 넘어 고역이다. 코는 아파서 입도 못 벌리고 게다가 짜증나게 코끝은 또 왜 이렇게 뾰족하지? 붓기가 덜 빠져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얼굴 전체가 보라색 멍 때문에 거울속의 내 얼굴은 영락없이 마귀할멈이다.

이새롬은 매부리코로 고민하다가 코 성형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코 막힘으로 인한 호흡 곤란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몸을 통해 코의 구조와 제 기능의 중요성을 직접 깨닫는다. 이새롬에게 성형 전 심미적 관점으로만 소비되고 기능하던 몸은, 수술 후 신체 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집중된다. 여고생들은 성형 후 삽입

된 인공보형물과 이물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고통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몸을 재조명한다.

“콧대랑 코 끝 중간에 그림처럼 좀 파여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뭔가 좀 손으로 만져 봐도 경계 진 느낌이랄까 그런데 의사 쌤 말로는 콧대 실리콘이랑 코끝 연골 일부러 좀 띄워나서 그런 거라고 딱 붙여 놓으면 구축되기 쉬워서 그렇다는데 코 수술 하고 숨 뺐는데 콧속에서 이물질 때문에 코가 막혀서 또 다시 코로 숨을 못 쉬고 있는 게 불편하죠. 코로 숨 쉬고 싶어서 휴...” (이새롬)

매부리코랑 복코를 교정하는 수술을 동시에 받아서 그런 건지 정말 너무 아프다. 콧대 실리콘이랑 코 끝 연골이 동시에 들어가서 그런지 욕신거리고 따갑고 다 떠나서 코가 이물질 때문에 콧 막혀서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게 제일 고역이다. 입으로만 숨을 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 일 줄이야... 성형 수술 전에 내 코는 그저 매부리코, 주먹코, 복코일 뿐 내가 이 코로 숨 쉬고 살고 있다는 걸 한 번도 의식해 본적이 없었는데, 수술하고 보니 코로 숨 쉬는 것이 정말 보통일이 아니었구나... 아! 빨리 코로 숨 쉬고 싶다. 코로 숨 쉴 수 있는 감사함과 고마움을 이제야 알겠다.

## 2) 후회

송혜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단지 혼자 쌍꺼풀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반 또래는 물론 담임선생님에게까지 술한 외모 비하 발언과 놀림을 받으며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죄인처럼 살았다. 한국에 오자마자 전학 수속을 밟는 대신 제일 먼저 엄마와 함께 강남에서 가장 크고 유명하다는 성형외과로 달려갔다. 비절개 눈매교정, 앞트임, 자연유착, 이중매몰을 동시에 진행하는 쌍꺼풀 수술을 하며 드디어 그녀는 오래된 한(恨)을 푼다.

“수면마취 들어가는데 졸리느냐고 물어 보시더라고요, 아는데 난 안 졸린데... 불안한 마음으로 저 안 졸려요 하자마자 잠든 것 같네요. 수술하고 나서 비몽사몽 저는 괜찮은데 회복실에 계셨다가 손잡아 주시더라고요, 쌍수 후 4일 정도 됐나? 앞트임 한 눈 앞머리가 답답해서 식염수 묻힌 면봉으로 툭툭 건드렸는데 왕 눈곱이 특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밥이랑 엉켜있는데 억지로 떼면 상처날

까봐 그냥 뒀거든요. 그전까지는 제가 인도네시아 때부터 쌍꺼풀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정말 욕심거리는 거 따가운 거 다 참아낼 수 있었는데 그때 잠깐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걸 왜 했나?”

그토록 원하던 쌍꺼풀 수술이지만 막상 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작한다니까 불안하기는 하다. 그래, 쌍꺼풀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당한 서러움과 우울했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 참자. 참아보자! 이정도 따가움과 욕심거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쌍꺼풀 수술은 정말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까지 아픈지 새삼 놀랐다. 앞트임을 해서 그런지 눈 앞머리가 따갑고 욕심거리는데 이게 또 근질근질해진다. 식염수 묻힌 면봉으로 툭툭 치면 좀 나아질까? 세상에! 누런 왕 눈곱 같은 이 덩어리는 또 뭐지? 아,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걸 내가 대체 왜 했을까?

### 3) 고통의 망각과 자기만족

인문계 고등학교 자퇴 후 재수를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시이는 또래에 비해 1살이 많다. 본인 스스로 한살이나 많고 늙었다는 위축감과 자괴감으로 민감하게 행동한다. 최대한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존재감 없이 학교생활을 해왔다. 누구도 봐주지 않는 초라한 외모로 그렇게 1학기를 보냈다. 인생은 자꾸만 우울해지고 재미가 없다. 기분전환 할 겸해서 큰 돈 들여 강남 미용실에서 염색과 파마를 했다.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나니 거울속의 모습은 내가 봐도 너무 예쁘고 만족스럽다. 학교에 가니 데면데면 대하던 반 친구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꼭 공주머리 같다고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한다. 전학 온 후 처음으로 반 친구들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 내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 같아 정말 행복하다. 그날 이후 친해진 친구들이 내 눈을 보며 쌍꺼풀만 있으면 더 예뻐질 것 같다고 부추긴다. 역시 화장, 염색, 파마만으론 어딘가 아쉽고 부족하다. 친구들이 압구정동 성형외과로 상담을 간다고 함께 가자고 한다. 하긴 고2겨울방학까진 무조건 쌍꺼풀 수술을 해놔야 고3졸업앨범엔 당당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찍을 수 있겠지. 그래, 지금이 적기다!

“저는 붓기가 정말 별로 없는 편이라서 딱히 성형하면서 고생은 안했고 실밥 있는 채로 학원도 갔어요. 근데 지금 조금 후회 되는 건 어차피 한동안 흉한 모습으

로 지낼 텐데 그럴 바에 결과가 확실한 절개법으로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왕 하는 거 드라마틱하게 티가 좀 나아하는데,,, 다음에는 아웃으로 해야겠어요. 처음에 쌍수 실밥 풀고 붓기 짹짹 빠지고 화장하고 친구들이랑 홍대, 강남 놀러 다니는데 다들 예뻐졌다고 하고, 기분 개꿀이에요. 셀카를 찍으면 진짜 사진이 또렷하고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전 코도 할 거예요. 제 코가 복 코인데 복 코는 어떻게 수술을 하든지 티는 난데요. 근데 요즘 남자애들도 못생긴 애들보다는 티 나는 성괴라도 예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좋아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쌍수를 좀 더 일찍 할 걸 그랬어요. 진짜 자기 눈이 엄청 콩알 만 하고 못생겼으면 쌍수는 어릴 때부터 빨리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성형은 시간의 싸움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되요.”

매몰법으로 한 쌍꺼풀 수술이라 붓기는 덜 했지만 실밥을 풀기 전까진 어쩔 수 없이 흉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며칠 더 고생하더라도 차라리 효과가 확실하고 드라마틱한 절개법으로 수술 할 걸 그랬다. 실밥을 풀고 나니 붓기는 더 잘 빠지고 쌍꺼풀 한 게 티도 안 나고 자연스러워 졌다. 화장을 하고 사진을 찍어 보니 역시 쌍꺼풀이 생기니까 인상이 또렷해 보이고 예뻐 보인다.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러 홍대에 갔더니 다들 예뻐졌다고 칭찬해준다. 기분이 너무 좋다. 성형 수술 하길 잘했다. 쌍꺼풀 수술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너도 어서 빨리 수술해서 예뻐지라고 말해줬다. 어차피 성형 수술 하고 흉한 모습으로 고생하는 건 단 며칠이다! 성형은 시간의 싸움이다, 시간만 흘러가면 된다.

### 3. 수술 후의 고민들

#### 1) 자신감의 획득: “사회적인 미의 기준에 따라야”

연구 참여자들은 성형 수술 후 “예뻐졌다”는 주변의 긍정적 평가와 인정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했다고 말한다. 성형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획일화된 미를 실천하고 구현한 자신의 행위성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사회적 자아로 살아남기 위해 몸이 최후의 투자처라는 의식은 더욱 공고해진다.



“웃기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대치동에 있는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 끝나고 근처 빵집에 빵을 사러 몇 번 갔는데 빵집 주인아저씨가 제가 사지도 않은 빵을 막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빵집 안에서 빵 굽는 남자가 저를 계속 보면서 작업을 건 거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직접 나와서 제 핸드폰 번호를 묻더라고요. 정말 예쁘다고 사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김은서)

“성형 후 렌즈를 끼고 학교를 가는 일이 많아지고 진짜 인상자체가 달라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화장도 만날 하고 화장하는 낙에 살아요. 같은 반 친구들 중에 무쌍인 친구들한테 고민하지 말고 얼른 수술하고 예뻐지라고 말해줬어요. 주위에서 자리 잘 잡고 자연스럽게 됐다고 저보다 더 좋아하네요.” (이다희)

“외관상으로 봤을 때 옆에서 보면 매부리코의 좀 튀어나온 부분이 아예 없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하길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얼굴도 훨씬 작아 보이고 무엇보다 예뻐졌단 소리를 많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진짜 하루에 거울 백번 이상은 보는 거 같아요. 전에는 코가 콤플렉스여서 자신감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고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이새롬)

“수술 후 퉁퉁 부은 눈으로 봄 방학 때 학교에 갔는데 저희 반에 3명이나 더 쌍수를 하고 왔더라고요. 친구들은 지들끼리 막 예뻐졌다고 얼렁 하고 있고. 처음에 쌍수 실밥 풀고 붓기 짹짹 빠지고 화장하고 친구들이랑 흥대, 강남 놀러 다니는데 다들 예뻐졌다고 하고, 기분 개꿀이에요. 셀카를 찍으면 진짜 사진이 또렷하고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전 코도 할 거예요.” (신시아)

연구 참여자들은 성형 후 외모 변화로 생긴 자신감을 ‘기분이 개꿀’, ‘하루에 거울 백번 이상 보는 것’, ‘화장하는 낙에 산다’로 표현한다. 성형 후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주변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외모에 신경을 쓰고 투자하는 시간도 증가한다. 또한 성형을 망설이는 주변 또래에게 성형 성공을 자신감 획득의 미담으로 포장한 채 ‘외모가 곧 권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든다.

“아빠가 얼굴에 칼 대는 거 절대 싫어하시고 성형 하는 것 자체를 극혐 하시는데 제 코 수술은 잘했다고 칭찬 하시는데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코가 늘 아쉬웠대요. 좋은 건지 슬픈 건지 (웃음) 아빠야 아무 생각 없이 한말이었겠지만 상처...

유치원 때부터 외모로 비교당하면서 응어리진 내 맘을 아무도 몰라요. 언니가 친구들에게 동생이라고 하면 아는 동생인줄 알아요. 친동생이라고 하면 그 표정들 반응들 잊질 못해요. 평생” (조유빈)

조유빈은 성형 수술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던 아빠로부터 성형 수술 후 ‘잘했다’는 칭찬을 듣는다. 하지만 그런 아빠의 칭찬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자신의 성형 수술 전 외모에 대한 아빠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된 후 착잡한 심정과 함께 만감이 교차한다. 남성적 시각에서 여성의 몸과 외모를 평가해 온 오랜 관행은 몸의 자본화, 몸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억압으로 작용한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확히 어디 어디 했는지 잘 몰라요, 푸하하하. 물어보면 그냥 싹꺼풀만 싹짜 했다고 해요. 요새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이제 지금 모습에 200% 만족하고 살려고요. 외모에 자신감이 너무 생겨버린 게 단점이라면 단점?” (조유빈)

성형 후 조유빈은 ‘외모에 자신감 너무 생긴 것이 단점’이라며 성형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존감까지 높아졌다고 말한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성형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된 미의 기준을 수용하고 실행하면 누구나 찬양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형을 통해 완성된 외모는 자신감과 자존감 획득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믿는다.

## 2) 새로운 불안: “자연미인과 성형미인 사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형 수술로 달라진 외모는 자신감을 획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자연 미인이 아닌 인위적 미인이라는 불안감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성형 수술의 범람으로 성형 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자연미인과 성형미인으로 미인의 범주를 구분하고 구별하며, 모태미녀 즉 자연미인에 그 우위를 둔다. 때문에 성형 수술을 통해 미인의 반열에는 올랐지만, 자연미인의 대열에는 끼일 수 없다는 현실적 장벽과 소외를 느끼고 또 다시 갈등하게 된다. 강남 언니, 강남 혼녀, 의란성 쌍둥이는 모두 성형미인을 비꼬는 대표적인 단어로 통용된다.<sup>22)</sup>

“요즘엔 누가 예쁘다고 하면서 특히 코가 참 예쁘다고 하면 제가 먼저 굳이 성형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처음엔 내가 먼저 성형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하나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가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면 처음엔 칭찬인가? 성형한 사실을 알아챈 건가? 신경이 쓰이고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제가 소심한 A형 이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제 얼굴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니까 티도 안 나고 제가 먼저 말 안하면 사람들도 모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예전 모습을 말하는 게 싫고, 지금 이 모습이 원래의 저라고 생각했었을 좋겠어요. 그냥 좀 찌리긴 하지만 성형 사실을 밝히지 않을 뿐이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다 보면 가끔 성형한 걸 귀신같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자마자 어디서 했냐고 진짜 잘했다고 해요. 뭐 요즘은 성형이 흔하고 웬만큼 예쁘다 하는 여자들 중에 정말 자연미인은 많이 없잖아요.” (김은서)

김은서는 성형 수술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자연 미인이라 착각할 정도로 성형 수술한 티도 나지 않고 자연스럽다. 성형 후 현재 자신의 모습을 원래 타고난 자신의 얼굴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형미인이 자연미인인 척 했다가 부정적 낙인이 찍히면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관계로 부터 고립될까 두려워 외모 칭찬을 받을 때마다 성형 미인이란 사실을 굳이 밝혀야 할지, 밝히지 않고 자연미인인 척 은근슬쩍 넘어가야 할 지 늘 불안하다.

“겨울방학은 개학하고 딱 일주일만 학교 다니면 바로 봄방학이잖아요. 개학 첫 날 안 그래도 학교에서 제가 가십걸인데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제 뒷말하고 다니는 애들 있거든요. 개 네 무리들이 제 성형한 코를 보고 지들끼리 뭐라 뭐라 하더니만 금방 단체 특방을 만들어서 ‘강\*\* 성형 폭망’ 또 막 이러면서 저를 씹어대는걸 제 짝이 듣고 와서 전해주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한숨) 일주일 만에 제 코 성형 망한 거 학교에 모르는 애가 없을 정도로 소문 다 났죠. 가십걸이니까 (웃음) 한동네에 어릴 적부터 산 제 베프네 엄마가 은근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제 성형한 모습을 보면서 대놓고 “난 예전 너의 동그랗고 복스럽던 코가 더 귀엽고 예뻐는데...”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애써 돈 들여 나름 했는데 그건 좀 아니죠.” (이시안)

---

22) “강남의 유행어 ‘의란성 쌍둥이’를 아시나요? 강남 성형 최신 트렌드는 ‘강남 언니’ ‘강남혼녀’ 아닌 ‘모태 미녀’”. 2014-02-19. 메디파나뉴스.

성형 후 아름다워진 외모는 찬양을 받지만, 성형이 ‘자리 잡기까지’ 어색하고 인공적인 모습은 주변의 놀림거리가 된다. 이시안은 자신의 코 성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성형 폭망’이라는 가십거리로 전락한 채 단톡방을 통해 학교 학생 모두에게 퍼져나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분노한다. 외모에 따라 상이한 보상과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는 여고생들에게 외모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고립을 경험하게 한다.

“코가 예쁘다고 하기에 제가 또 생긴 거랑 다르게 성격은 털털하잖아요. 그냥 제가 먼저 성형했다고 말해요. 그래야 제가 맘도 편해요. 성형한 코가 좀 인위적이란 생각이 드는데, 처음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가도 아니 그래도 돈 들어 했는데 티는 나아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제 코에 만족하고 살아요. 오히려 성형한 걸 당당히 밝히니까 남자애들 반응도 쿨 하게 성형을 해도 예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더라고요.” (이시안)

이시안은 성형 후 ‘폭망’이라는 부정적 평가와 SNS를 통한 긍정적 반응을 두루 경험하면서 자신이 먼저 성형 수술 한 사실을 밝혀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한다. 성형 수술 사실을 애써 감추며 자연 미인인 척 전전긍긍하는 또래 친구들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다.

“저희 반에 평생 한 번도 예쁘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던 진짜 세상 비호감인 못생겼던 애가 쌍수를 엄청 하고 눈 모양을 완전히 바꾸고 예뻐져서 호감형 얼굴이 됐는데, 쌍수 한 후 쌍얼은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니까 그걸 감추려고 갠 아예 아침부터 화떡으로 오거든요. 웃긴 건 자기도 해서 예뻐진 주제에 자신감 만렙 상승해서 성형 안한 애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막 나가는 거 있죠. 아주 웃겨요.” (이시안)

이시안은 쌍꺼풀 수술 후 과한 화장으로 성형 한 사실을 감추려 애쓰는 행위를 ‘화떡’으로, 성형 후 예뻐져서 자신감 ‘만렙’ 상승한 같은 반 또래에 대해선 ‘성형한 주제’로 일갈한다. 여고생들은 성형 후 자신과 타인의 성형에 대해 이중 기준을 적용한다. 자신 외모의 우월함은 성형이란 노력에 의해 개선된 것으로 정당화하는 반면, 타인의 성형은 과거의 행적에 중심을 둔 조작적 결과로 간주한다. 성형 후 획득된 자신

감을 내세워 자신의 성형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외모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는 ‘성형 후 예뻐지고 달라진 그녀들’의 태도 역시 획득된 자신감의 불안함을 반증한다.

### 3) “다시 성형할까?”

연구 참여자들 중 다수는 성형 수술 후 같은 부위에 대한 재수술이나 다른 부위의 성형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긴다. 성형 수술 후 느낀 통증과 고통 정도는 쉽게 잊혀 지며 달라진 외모에 대한 주변의 칭찬과 찬사는 또 다른 성형 실천을 추동한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몸을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인 주체성의 산실로 만들고 이미지 관리, 자기 투자, 자기정체성 찾기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이나 자아관을 새롭게 인식하는 경험으로 파악한다(김은실, 2001: 9). 사회가 요구하는 유순하고 획일화 된 몸으로 길들여지면서 몸에 대한 자기 규율, 자기 감시가 확산되고 몸의 식민지화 현상이 심화된다(김양선, 2014). 성형 의료 기술은 인공적인 도움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의 범주를 전신으로 확산 시키며 원하는 몸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산 시킨다. 몸을 조형/구조하려는 시도들의 이면에 성형 산업에 의한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이런 구조적 원인들을 간과한 채 여고생들의 자기 감시와 자기 검열은 자발적으로 수용되고 강화된다. 게다가 소비문화가 유포하는 성형 트렌드는 유행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므로 한번 성형 수술을 실천한 여고생들은 새로운 것을 쫓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억압에 시달리게 된다.

“예고에 입학하자마자 중3 겨울방학에 절개눈매교정, 앞트임, 인아웃 쌍꺼풀을 했어요. 쌍수하고 실밥 풀고 한 며칠 지났나? 눈 흰자 있는 데에 뭐가 부풀어서 징글... 근데 아프지는 않고요. 그냥 약간 불편한 정도만 있는 거예요. (중략) 제가 세로는 큰데 가로가 작았던 눈이라 답답해 보이는 눈 꼬리가 올라가 드센 인상이었는데 붓기가 있어도 축 내려간 눈 꼬리가 되니까 오빠가 소 눈 같다며, 1 겨울 방학에는 약간 매부리에 휘어있어서 실리콘을 얇게 깐 코 수술을 했어요. 코 수술 일주일 후에 실밥 풀고 부목 떼러 가는데 실밥을 아프게 꺾매 놔서 육신육신 풀 때 많이 아프더라고요.” (박하늘)

“코 성형 전에는 쌍꺼풀 수술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코 성형 직후엔 진짜 너무 아파서 다시는 성형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후회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고통은 기억이 안 나고 할 만하단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요즘은 다시 쌍꺼풀 할까 생각중이에요.” (이시안)

박하늘은 쌍꺼풀 수술 후, 하루에도 수 십 번씩 거울을 보며 코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꼈다. 성형한 부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리를 잡아 가면서 굳이 성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부위로 관심이 이동한다. 다른 부위에 대한 새로운 성형의 욕망은 여고생들에게 피로감의 원천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피로는 또 다른 성형 실천을 통해서만 해소된다는 신념을 강화하며 몸에 대한 식민현상의 악순환을 추동한다.

“(처음 쌍꺼풀 수술은) 안과에 가서 한 거라 그런지 미적인 부분은 하나도 고려가 안 되게 해놔서 쌍꺼풀 자체가 너무 두껍고, 계속 연고 바르고 냉찜질 열심히 해도 절개법으로 한 거라 칼자국 자체가 너무 선명하게 붉어져서 계속 가라앉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눈 위에 줄줄이 비엔나 두 개 얹어놓은 것 같이 핑크색 소시지 같았어요. (중략) (재수술은) 자연유착, 비 절개 눈매 교정, 앞트임, 뒤트임, 위트임, 밑 트임 ㅋㅋㅋㅋ 정말 원 없이 다했어요. (중략) 제가 그동안 부담스러운 쌍꺼풀로 살아 왔잖아요. 지금은 전혀 안 부담스럽고 너무 좋아요.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은 성공적인 수술이 된 거 같아요. 자연스러움과 화려함의 딱 중간인거 같아요.” (이다희)

“고 1 겨울방학에 쌍수를 했어요. (중략) 실밥 풀고 나니 눈 라인은 마음에 드는데 붓기가 빠지고 나니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얇아져서 걱정이더라고요. 근데 점점 더 자연스러워 지고 얇아져서 이게 쌍꺼풀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속으로 말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뒤트임도 아물자마자 좀 지나니까 붙어 버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후기를 봐도 뒤 밑 트임은 다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눈꺼풀도 처지고 쌍꺼풀 라인도 덩하고 진짜 스트레스... 엄마도 다시 얇아지는 제 쌍꺼풀 라인을 보고 다시 옛날 얼굴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고2 겨울방학에 다른 병원에 가서 자연유착, 눈매교정, 앞트임까지 했어요. 아 근데 진짜 거기서 멈춰야 했나 보아요. 앞트임 수술 후에 멍은 사라졌는데 자꾸 빨갛게 되더니 부어오르고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병원 가서 따졌더니 무료로 레이저3번 해주겠다고 했

는데 하면 할수록 더 붉어지고 흉터가 진해지고, 망했죠.” (윤지우)

재수술은 통상적으로 성형 후 부작용이나 만족하지 못한 결과물로 인해 이루어지지만, 시시각각 새롭고 빠르게 변하는 성형 수술 기법과 트렌드에 맞게 같은 부위를 또 다시 변형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되는 경우도 있다. 이다희는 안검하수 치료 목적으로 안과에서 실시한 부자연스럽고 인공적인 쌍꺼풀을 자연스럽게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했다. 윤지우는 성형 후 점차 얇아지며 자연스러워지는 쌍꺼풀 때문에 “옛날 얼굴 나온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은 후, 너무 인위적이거나 인공적이지 않으면서도 화려하고 자연스러운 현재 성형 트렌드에 맞는 쌍꺼풀을 위해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여고생들은 초정상적인 몸을 지향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면서 설계하고 형체화한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지만 화려한”과 같이 그녀들이 욕망하는 모호한 미의 기준은 몸이 성형 산업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성취될 수 있다는 모순과 갈등이 결합하는 지점임을 드러내며 행위성이 발휘되는 공간임을 시사한다.

“저처럼 입시무용을 시작한 친구들 중에 쌍수 안하고 생긴 대로 사는 애를 찾는데 더 어려울 정도로 요즘엔 쌍수는 기본이죠. 비 절개, 자연유착, 앞트임, 윗트임, 눈매교정을 한 번에 섞어서 하는 게 유행이죠.” (조유빈)

“눈매교정, 비절개 자연유착, 앞트임 인 아웃라인을 했어요. 수술 후 3일 동안 엄청 아팠어요. 타이레놀을 최소 시간마다 복용하고 잠을 자는 건지 깨있는 건지 할 정도로 엄청 아팠는데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나니 제가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말 안하면 쌍수 한 줄도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자연유착이라 눈감아도 티가 안나요. (중략) 사각턱에 통통하고 광대가 있고 옆넓이가 넓고 옆모습이 윗입술만 특 튀어나와서 고민이었거든요. 얼굴이 커 보이는 억울한 스타일이라고 1 겨울방학에는 앞 광대를 필러를 맞고 안면윤곽을 했어요. 좀 가름해진 것 같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큰 맘 먹고 한 거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2% 부족한 느낌... (중략) 고민 끝에 고 2 겨울방학에는 콧대실리콘, 코끝 비중격이랑 귀 연골을 사용하는 코 수술을 했어요.” (조유빈)

무용을 전공하는 조유빈은 중학교 시절부터 고2까지 방학마다 쌍꺼풀 수술, 윤곽수

술, 코 수술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형 수술 후 예뻐진 외모로 인해 달라진 대우를 경험한 후, 성형 후의 후회나 고통의 기억을 잊은 채 다른 부위의 성형을 욕망하며 적극적으로 성형을 실천하고 소비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쌍꺼풀 수술로부터 시작되어 다른 부위로의 성형으로까지 이어진 여고생들은 절반 이상이며 성형 수술의 범위와 종류 또한 정교해지고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다른 연구 참여자 역시 다른 부위의 성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인터뷰 중 밝혀졌다. 개선된 외모로 인해 획득된 자신감은 여고생들에게 그 자체로 꽤 괜찮은 여성으로서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성형 실천으로 몸에 부여된 새로운 의미와 특권은, 획일화 되고 경직된 미의 기준에 의해 조작된 실천이자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기 위한 평가와 분리의 도구라는 이중적 잣대로도 기능한다.

이는 여고생들의 성형과 그 경험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들이 일관적이거나 체계적이지도 않으며 모순, 갈등, 가능성이 다양하게 중첩된 지점에 위치해 있음을 드러낸다.

자신의 외모는 성형을 통해 내재된 잠재력이 구현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 하지만 성형수술 자체가 그리 존경받을 만한 행위가 아닌 조작적 결과라는 모순을 자신들의 몸을 통해 봉합해 나가려고 시도한다. 결국 그녀들은 또 다른 부위의 수술이라는 선택적 오류를 범한다. 다른 부위로 전이된 새로운 성형의 욕망들은 끊임없이 여고생들로 하여금 외모를 감시하고 관리하며 보수와 개선을 통해 변형시켜야만 하는 주체로 만든다. 여고생들은 소비문화가 요구하는 몸과 성형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으로 새로운 몸과 자아를 완성해야만 한다는 억압에 시달린다.



## IV. 결론: 합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여고생들의 성형 경험을 통해 성형을 추동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시도다.

학교 교육, 부모와 또래 등 동료 집단으로부터 경유된 자기개발 담론, SNS 플랫폼 시대의 자기전시문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 내면화, 성형산업과 같이 여고생 성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수들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틀을 설정하고 그녀들이 성형을 의미화 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학교 제도적 영역을 통해 여고생들이 받는 몸과 신체 이미지에 대한 교육은 체육 교과와 생활지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 체육은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균형적 발달을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심신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 습관 실천을 통해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자아의식을 배양하여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과목의 목적을 두고는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올바른 신체 이미지 정립,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가치정향, 건전한 성의식 및 사회적 함양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학습 환경 및 제도적 여건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체육 교과를 실기 평가 위주의 운동 기능 수행에 천착하는 과목 정도로만 인식하며, 체육 교과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몸과 신체이미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연구 참여자들이 기억하는 학교에서 받은 몸과 관련한 신체 이미지 교육은 보건 시간에 받은 단편적이고 기초적인 이차성징과 성교육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이 역시도 지도 교사의 지식수준이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고생들은 오히려 단정하고 학생다운 외모의 기준을 제시하며 단속, 규제하는 학생생활지도가 자신의 몸, 화장, 복장, 헤어스타일 등에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훈육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생활지도라는 명목 하에 외모 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다운’이라는 엄격함과 ‘여자애니까’라는 허용 사이의 모순도 지적한다. ‘여자애들이 립스틱 좀 바르는 게 어때서’,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내버려둬’라는 시각은 외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가 아닌, 여자가 여자답게 꾸미는 것은 미덕이라는 남성 중심적 관점에 기초하며, 이렇듯 모호한 기준은 여고생들에게 또 다른 방식의 성별화 된 몸 가꾸기 욕망을 발생시킨다.

여고생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일상화된 외모 지적과 평가로 인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토로하며 외모 한가지로 낮아진 자존감을 자신의 모든 것과 결부시킨다. 자존감을 획득하기 위한 여타의 자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고생들에게 타인의 인정과 평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부모와 또래를 경유한 자기계발 담론을 통해 여고생들은 공부 아니면 외모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고착화하며 자기감시와 자기 검열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부모와 또래집단의 평가로 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키우지 못한 채 몸의 자기결정권을 자기완성 프로젝트로 의미화 한다. 여고생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기준에 맞는 자본으로서의 상품성을 갖추기 위해 몸은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고 유순하며 가변적인 실체라 여긴다. 또한 ‘경쟁력 있는 몸’을 위한 노력은 ‘자기관리’의 맥락에서 스펙으로서 이해된다. 한국의 거대 성형 산업은 청소년들이 가진 다양한 자원과 능력을 키울 가능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몸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장소라고 주입한다. 이 과정에서 성형을 통해 신체 보수와 개선을 실천하는 여성들을 마치 적극적이며 자아를 계발하는 주체인양 추앙하면서 여고생들이 성형을 모방하도록 추동한다. 이처럼 성형 수술을 자아연출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으로 포장하며, 표준에 맞지 않는 외모를 가진 여성들을 타자화 하면서 가부장제 사회, 소비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몸을 동질화함으로써 ‘외모가 곧 권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든다.

여고생들은 수술 부위, 수술법, 의사, 가격 및 서비스 등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성형을 신중하게 선택했노라 말하지만,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성형을 유도하는 의료 산업의 작동 논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결국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감시하고 규율하면서 성형을 소비하는 불완전한 주체로 호명된다.

성형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로 재창조 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몸을 경험한 여고생들은 변형된 몸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했다고 말한다. 외모에 따라 상이한 보상과 재제가 가해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자아로 살아남기 위해서 후천적 노력이나 자본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몸을 투자, 관리 하는 것이 선택

이 아닌 당연한 일이라 말한다. 이렇듯 있는 그대로의 몸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유순하고 획일화된 몸으로 길들여지면서, 자기 규율, 자기 감시를 강화하는 몸의 식민화 현상은 심화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SNS의 사용으로 일상화된 자기전시문화는 여고생들의 성형 실천의 뇌관으로서 작동한다. 실시간으로 신체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인정투쟁의 공간에서 자신의 몸을 시각화하고 전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형은 자연스럽게 탈신비화된다.

성형 후 연구 참여자들은 외모와 관련한 새로운 경험을 한다. 외모 차별주의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미를 구현한 몸은 신분상승을 한 듯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자신감 획득을 돕는다. 성형으로 경험한 변형 가능한 몸과 조형화된 몸의 열려진 가능성은, 몸 자본은 후천적 노력과 투자로 습득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며 새로운 욕망과 고민을 추동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성형 트렌드 역시 욕망의 기폭제로 기능하면서 여고생들은 소비문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몸을 또다시 쫓아가야 한다는 억압에 시달리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 여고생의 성형 경험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관점을 통해 해석과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을 함의한다. 여고생들의 성형 실천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여고생의 성형 경험을 둘러싼 젠더 동학을 다룬 논문들은 많지 않다. 특히 성형 수술 경험자들에 대해 자존감이 낮다는 식의 개인적/심리적 요인으로 치부하거나, 단순히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로 단정 짓는 시각을 지양하고, 성형을 설천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해 분석틀을 통한 다층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성형을 하는 여고생들의 경험과 목소리로, 구체적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대응해 나가는가를 탐구하며, 그녀들의 성형 경험에서 드러난 모순, 갈등, 가능성을 추적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획일화되고 파편화된 그릇된 시각의 몸 담론에 대한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성형을 경험한 한국 여고생들의 경험과 그 해석에 주목하였기에 청소년기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개발 자료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성형을 경험한 16-18세 청소년기 여고생들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생애주기), 성별, 시술부위에 따른 성형 경험자들 내부의 차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1. 국내 문헌

- 고든, 콜린. 1995.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홍성민 역. 나남.
- 고석주·정진경. 1992. “외모와 억압”. 『한국여성학』 8: 33~70.
- 권수현 외. 1996. “외모 가꾸기에 대한 여성학적 분석: 20대 여성의 성형 수술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연구논집』 30: 237~278.
- 그림쇼, 진. 1997. “자유의 실천”. 최영 역. 라마자노글루 C. 외. 『푸코와 페미니즘, 그 긴장과 갈등』. 동문선.
- 김고연주. 2010. “나 주식회사와 외모 관리”.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 김미란. 2004. “남녀 대학생들의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한 인식”.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애라. 2016. “십대여성의 디지털노동과 ‘소녀성 산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양선. 2014. “신자유주의 시대 경쟁하는 몸”. 『젠더와 사회』. 동녘.
- 김예란. 2015. “디지털 창의노동: 젊은 세대의 노동 윤리와 주체성에 관한 한 시각”. 『한국언론정보학보』 69: 71~110.
- 김은실. 2001. “아들 낳기”와 여성의 주체성.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 김은하. 2005. “여성주체의 발견과 저항공간으로서의 몸”. 『여성의 몸』. 창비.
- 김현미. 2010. “우리 곁의 신자유주의”.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 나윤경·태희원·노주희·장인자·이지은. 2009. “십대 여성의 외모중심 인식을 추동하는 일상과 성형의료산업”. 『한국여성학』 25(4): 73~108.
- 바트키, 샌드라 리. 2001. “푸코 여성성, 가부장적 권력의 근대화”. 윤효녕 역. 콘보이, 케티 외. 2001.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조애리 역. 한울.
- 박연옥. 2004.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찬석. 2001.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 연구: 대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보르도, 수전. 2003.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박오복 역. 또 하나의 문화.
- 비클리, 심슨·닛잔, 조나단. 2004. 『권력자본론』. 홍기빈 역. 삼인.
- 손은정. 2011. “여대생의 성형수술 경험 및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한국여성심리학회』.
- 셀링, 크리스. 1999. 『몸의 사회학』. 임인숙 역. 나남.
- 엄현신. 2007. “얼굴에 대한 미의식과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경자. 2002. “여성의 외모주의와 성형의료산업”.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광래. 1989. 『미셸 푸코』. 민음사.
- 이미경 외. 2013.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소희. 2008. “몸 정치학: “날씬한 몸” 만들기의 수행성과 주체성의 역학”. 『젠더와 사회』 7(2): 126~153. 한양대학교 여성연구소.
- 이수안. 2008. “소비문화산업의 몸 이미지와 젠더화된 응시”. 『한독사회과학회』.
- 이영자. 2000. 『소비자본주의사회의 여성과 남성』. 나남.
- 이영자. 2006. “몸권력과 젠더-푸코적 분석틀에서 본 ‘날씬한 몸’ 관리”. 『한국여성학』 22(4): 203~214.
- 이희영. 2011. “텍스트의 세계 해석과 비판사회과학적 함의: 구술자료의 채록에서 텍스트의 해석으로”. 『경제와 사회』 91: 103-143.
- 임소연. 2000. “미용성형수술 환자와 일반인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인숙. 2002. “한국사회의 몸 프로젝트: 미용성형 산업의 팽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183~204.
- 임인숙. 2010. “미용성형공화국의 고지되지 않는 위험”. 『사회와역사』 88(1): 183~204. 『페미니즘연구』 12(1): 188.
- 전보경. 2010. “몸-자아 테크놀로지로서의 미용성형에 대한 계보학적 답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 2005. 『제도공간의 질적연구 방법론』. 교육과학사.
- 조주현. 2000.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 조현순. 2005. “거식증과 우울증의 정치학: 푸코 보르도 버틀러를 중심으로”. 『여성의 몸』. 창비.

- 최백화. 2003.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옥신. 2005. “여성의 몸 담론과 성형담론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여성잡지의 기사와 성형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현진. 2004. “성형수술자의 경험을 통해본 중년 여성의 ‘나이듦(aging)’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태희원. 2011a. “미용성형의료 네트워크의 재구성 과 소비자/환자 주체의 형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태희원. 2011b. “미용성형 의료기술의 탈신비화와 고통의 비/가시화”. 『젠더와 문화』 4(1): 89~129.
- 태희원. 2012.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자기계발로서의 미용성형 소비”. 『페미니즘 연구』 12(1): 189.
- 테일러 · 차넬 S. 2008. “‘생명과학기술’과 ‘여성의 몸’: 위험한 개념들”. 『프랑켄슈타인의 일상: 생명공학시대의 건강과 의료』. 박연규 · 백영경 역. 밈.
- 푸코, 미셸. 1994. “통치성”. 정일준 역. 『미셸 푸코의 권력 이론』. 새물결.
- 푸코, 미셸. 1984.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 문경자 · 신은영 역. 나남.
- \_\_\_\_\_. 2004b. 『성의 역사 3: 자기배려』. 이혜숙 · 이영목 역. 나남.
- \_\_\_\_\_. 1995.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 \_\_\_\_\_. 1994. 『미셸 푸코의 권력 이론』. 정일준 역. 새물결.
- 프리가 하우그. 1997. 『마돈나의 이중적 의미: 슬레이브결과 일상적 성사회학』. 박영옥 역. 인간사랑.
- 한서설아. 2000. 『다이어트의 성 정치』. 책세상문고.
- 함인희. 2006. 『한국의 일상 문화와 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 외국 문헌

- Balsamo, Ann. 1996. “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Reading cyborg women”. Duke University Press.
- Bartky, Sandra Lee. 1988. “Foucault, Femininity, and the Modernization of Patriarchal Power”. In Diamond, I. & Quinby, L. (eds.), 1988. “Introduction”. *Feminism and Foucault: Reflection on Resist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ordo, Susan. 1993. “Feminism, Foucault and the Politics of the Body”. In Ramazanogh, C.

- (ed.). *Up Against Foucault: Exploration of some tensions between Foucault and feminism*. New York: Routledge.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eds.),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 Budgeon, Shelley. 2003. "Identity as an Embodied Event". *Body & Society*, 9(1): 35~55.
- Burchell, G. & Colin G. & Miller, P. (eds.). 1991.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with two lectures by and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t, Cox. 1992. *Inventing Women: Science, Technology and Gender*. Cambridge: Polity Press.
- Colin, G. 1991. "Governmental rationality: an introduction". In Graham Diamond, I. & Quinby, L. (eds.). 1988. "Introduction". *Feminism and Foucault: Reflection on Resist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Driscoll, C. 2002. *Girls: feminine adolescence in popular culture & cultu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riscoll, C. & Gregg, M. 2008. "Broadcast Yourself: moral panic, youth culture and internet studies". In Usha M. & Rodrigues. 2008. *Youth media in the Asia Pacific Region*.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ress.
- Foucault, M. 1988. "Dits et écrits 1954~1988". *TomeIV*. 1980~1988. Paris: Gallimard.
- \_\_\_\_\_. 1984. "Dits et écrits 1954~1988". *TomeIV*. 1980~1988. Paris: Gallimard.
- \_\_\_\_\_. 1983. "Dits et écrits 1954~1988". *TomeIV*. 1980~1988. Paris: Gallimard.
- \_\_\_\_\_. 1982. "The Subject and Power: An Afterword". 208~226. In Drefus, H. & Rainbow, P. 1982.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In *Dits et crits*. 1982: 222~243.
- \_\_\_\_\_. 1976. "Histoire de la sexualité I".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 Fraser, Suzanne. 2003. *Cosmetic Surgery, Gender and Cultu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Frosh, Paul. 2015. "The Gestural Image: The Selfie, Photography Theory, and Kinesthetic Soci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9.
- Gill, R. & Scharff, C. 2013. *New femininities: postfeminism, neoliberalism, and subjectivi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ilman, Sander L. 1998. *Creating Beauty to Cure the Soul*.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Harris, A. 2004. *Future Girl*.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 Jarrin, Alvaro. 2010. "Cosmetic Citizenship: Beauty, Affect and Inequality in Southeastern Brazil". Ph. D. Thesis. Cultural Anthropology, Duke university.
- Joo-hyun, CHO. 2009. "Neoliberal Governmentality at Work: Post-IMF Korean". Davis, K. 1995. *Reshaping the female body: The dilemma of cosmetic surgery*. New York: Routledge.
- Manen, Van Max. 1990. *Phenomenology of Practice: Meaning-giving Methods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and Writing*. Left Coast Press.
- Marwick, A. 2013. *Status Update*. Yale University Press.
- McNay, Lois. 1992. *Foucault and Feminism, Power, Gender and the Self*.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McRobbie, A. 2009. *Aftermath of feminism*, SAGE.
- Peterson, Alan. 1997. "Risk, governance and the new public health". Peterson Alan & Bunton Robin (eds.) *Foucault Health and Medicine*, London: Routledge.
- Riessman & Catherine K. 1988. "Women and Medicalization: A New Perspective". Kirkup Gill & Smith Keller Lauries (eds.). *Inventing Women: Science, Technology, and Gender*. Cambridge: The Open University.
- Rose, Nikolas. 1998. *Inventing our selves: psychology, power, and person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 Nikolas. 2006. *The Politics of life itself: biomedicine, power, and subjectiv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wicki, J. 1996. "Feminism, Foucault and 'Subject' of Power and Freedom". In Hekman, S. J. (ed.) *Feminist Interpretations of Michel Foucault*.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Disciplining Foucault: Feminism, Power and the Body*. London: Routledge.
- \_\_\_\_\_. 1988. "Identity politics and sexual freedom: Foucault and Feminism". In Diamond, I. & Quinby, L. (eds.). "Introduction". *Feminism and Foucault, Reflection on Resist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Thompson, Charis. 2005. *Making Parents: The Ontological Choreography of Reproductive Technologies*. Cambridge: The MIT Press.
- Wolf, N. 1991. *The Beauty myth*. London: Vintage.

## Abstract

# A study on the Korean high school girls who have undergone Plastic surgery

Chang, Yumi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encouraging plastic surgery among Korean high school girls who have undergone cosmetic surgery.

In this study, the five variables that affect the plastic surgery procedures of high school girls were analyzed. They are schooling, self-help discourses from their parents and peers, selfie-culture in the era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platforms, and the internalization of distorted views on women.

In the school system, body image program is conducted through athletic courses and school life guidance. Physical education courses aim for the entire education through balanced development across the domains of psychomotor, cognitive, and affective. To foster desirable personalities and mental and physical fitness through internalization and practice of physical activity values and to foster positive body image and self consciousness and grow as healthy people. However, the learning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systematically overcoming body image problem, values for appearance, gender education and

social development are vastly insufficient. Most of the study participants felt that the subjects were only for improving athletic skills and assessing practical skills, and stated that they had no memory of receiving systematic or professional body image program. At least the only program for learning body image they received at school was secondary sex education in health care class. It also depends on the teacher's level of knowledge and discretion, limiting the quality of education to be different.

High school girls say that the guidance in their lives is a routine discipline that regulates their bodies, makeup, clothing, hair-styles, and others. However, the study participants also point out that the paradox of the strict 'schoolgirl' and the acceptance of 'feminine' standards is not the same as the basic virtue of securing appearances for female students.

Most of the participants say they have low self-confidence and self-esteem as a result of receiving comments about their appearance from their peer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e the loss of self-esteem to their appearance to everything else. When there is not a sufficient resource available to gain a sense of self-esteem, the acceptance and assessment of one's appearance is an important factor for high school girls. Talk about Self-help discourses through the parents and peers can help the high school girls stick to the dichotomy of the notion of studying or looking good, and freely embrace self-watching and control. Plastic is referred to as self-completing projects without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that can be objective away from the assessment of one's appearance.

High school girls regard the body as a docile entity that can be changed at any time according to the ideal standards required by society. Also, efforts to build a "competitive body" are seen as a spec in the context of "self-discipline".

The Korean plastic surgery industry instills the body as a key place to define identity, undermining the chances and competitiveness of the diverse talents and resources of high school girls. Women who practice plastic surgery encourage high school girls to imitate them, evaluating them as being actively

self-developers. Plastic surgery is called “investment and effort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self-direction” typing out women with inappropriate faces, and homogenizing women’s bodies. In the process, the girls are asked to indiscriminately accept the idea of ‘physical appearance is power’.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say they have chosen to mold themselves carefully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such as surgical sites, surgery procedures, doctors, prices, and services, but there is a lack of evidence in the plastic surgery industry that self-forming in the nam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study participants who have experienced a docile body that can be recreated through plastic surgery say they have gained confidence through the transformed body. High school girls say investing in and managing their bodies through plastic surgery is not an option and should be done as a rule. As the body is adopted as a uniform body requested by society, the body of high school girls is consolidated, reinforcing self-control, body surveillance, and strengthening their physical supervision.

As a daily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via smart phones, selfie-culture provides a platform for girls to practice plastic surgery. Feel the need for plastic surgery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to visualize the body in a space of physical monitoring and control in real time.

After cosmetic surgery, the participants have a new experience with different looks. In a world where physical discrimination exists, the body that is altered by plastic surgery is evaluated positively and helps to gain self-confidence. At the same time, high school girls are again being challenged to get plastic surgery done. The ever-changing plastic surgery trend is forcing high school girls to become obsessed with following a new trend.

The study implies that it was the first paper to try to interpret and analyze the plastic surgery experiences of Korean high school girls using their direct voices and perspectives. Not many papers analyze the plastic surgery experiences of high school girls with a gender-based perspective.

한국 여고생의 성형 경험에 관한 연구

The study tracked the contradictions, conflicts, and possibilities that were revealed by female high school girls who experienced plastic surgery. Through this, I hope that this paper will provide a foundation to find an alternative to the unified and ill-conceived body discourse that is prevalent in Korean society.

Key words: plastic surgery, self-help discourses, body surveillance, body discourse, docile body, high school girls

Student Number: 2010-20206